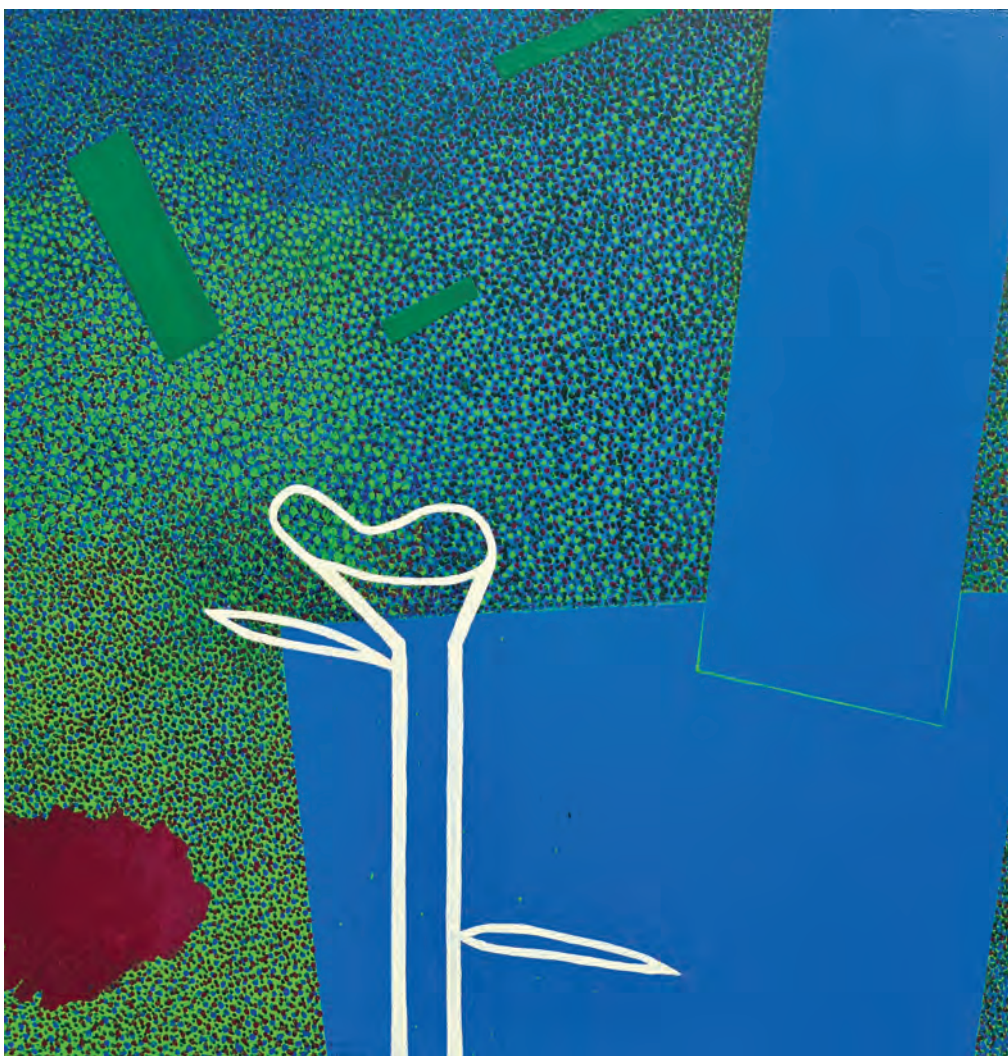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5·10 VOL.244



부산 축제!!

**10. 21.(화)
~ 22.(수)
영화의전당
야외마당**

11:00~17:00 예술체험프로그램

문화관광지 탐방: 순환버스 운행

[영화의전당-바다미술제-감천문화마을-
아르떼뮤지엄(관람시 20% 할인)-모모스커피-영화의전당]

개막식 | 10. 21.(화) 15:30~1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로비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안형수

10/21(화) 16:00~16:4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명사의 특강 <강사: 이대호>



전 야구선수 이대호

10/21(화) 19:00~20:3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대북, 박상용무용단,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안형수,
부산예술화관 합창단, 소프라노 고은솔, 뉴진스님(DJ)



개그맨 뉴진스님



가수 나태주

10/22(수) 15:00~17: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합창단, 태권무, 날뫼북춤, 남도민요,
스트릿댄스, 가수 나태주



베이스바리톤 길병민



바리톤 이승민

10/22(수) 19:30~21:00

부산콘서트홀

파이프오르가니스트 장대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바리톤 이승민

베이스바리톤 길병민



파이프오르가니스트
장대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영화의전당 행사에 참여 하실 경우, **부산콘서트홀 관람 교환권 및 소정의 기념품을 선착순 300명**에게 드립니다.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 (사)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건축가회 부산국악협회 부산무용협회 부산문인협회 부산미술협회
부산사진작가협회 부산연극협회 부산연예예술인협회 부산음악협회 부산꽃예술작가협회 부산차문화진흥원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 MBC KNN

문의처 | 051-631-1377

※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

**체험하고
공연보고
기념품 받자!**
(소진시까지)



오르간 장대호

바이올린 김재원

바리톤 이승민

베이스바리톤 길병민

지휘자 우나이 우레초 주비야가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연합합창단

클래식 물결 부산의 울림

Classic Waves, The Echo of Busan

2025. 10. 22 [수] 7:30pm



부산콘서트홀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KSPOT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K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문의 | 051-631-1377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

The 8th Jak Kang Theater Festival

제63회 부산예술제
2025 제8회

자 가 연극제

2025.10.15(수) ~ 25(토)

평일 19:30 주말 18:00

소극장 6번출구

주최 | 부산예술문화재단총연합회 주관 | 부산예술문화재단총연합회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 부산 MBC KNN
특별후원 | BNK 부산은행 大韓民國 文藝院
문의 |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051-645-3759 www.bstheater.or.kr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야간)부산사진작가협회 간사회, 051)631-4111 너도나도 방송댄스(4층연습 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아금 교실 (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교장구(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가곡교실(2층연습실) 14시30분~16시	2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사진아카데미 (4층 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 심화반 (4층 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 기초반 (4층 연습실) 16시~17시50분	3	4
5	6	7	8	9	10	11
12 부산예술제 연예예술인협회(예선) 051)646-7343, 13시	13 웰빙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30분	14 댄스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팡팡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17시30분~19시	15 부산건축가협회 부산건축도시사진전, 젊은건축 가전, 부산국제건축대전 전시(3 층, 4층 전시장) 051)241-4011 너도나도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아금 교실(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교장구(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가곡교실(2층연습실) 14시30분~16시	16 부산건축가협회 부산건축도시사진전, 젊은건축가전, 부산국제건축대전 전시 (3층, 4층 전시장) 051)241-4011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사진아카데미 (4층 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 심화반 (4층 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 기초반 (4층 연습실) 16시~17시50분	17 부산건축가협회 부산건축도시사진전, 젊은건축 가전, 부산국제건축대전 전시 (3층, 4층 전시장) 051)241-4011	18 부산건축가협회 부산건축도시사진전, 젊은건축 가전, 부산국제건축대전 전시 (3층, 4층 전시장) 051)241-4011
19 부산건축가협회 부산건축도시사진전, 젊은건축 가전, 부산국제건축대전 전시 (3층, 4층 전시장) 051)241-4011	20 부산문인협회 제63회 부산예술제 제12회 지역문화교류전 전시 (3층, 4층 전시장) 051)632-5888 웰빙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30분	21 부산문인협회 제63회 부산예술제 제12회 지역문화교류전 전시 (3층, 4층 전시장) 051)632-5888 댄스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팡팡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17시30분~19시	22 부산문인협회 제63회 부산예술제 제12회 지역문화교류전 전시 (3층, 4층 전시장) 051)632-5888 너도나도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아금 교실(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교장구(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가곡교실(2층연습실) 14시30분~16시	23 부산문인협회, 제63회 부산예술제 제12회 지역문화교류전 전시 (3층, 4층 전시장) 051)632-5888 부산광역시 학교안전총괄과 부산녹색에너지-건 립과 스포츠 관광진흥사업과로 교통안전지 도교육 051)860-0506, 10시 (오전후)부산미술협회의 제51회 부산미술대 전 원서접수 051)632-2400 (야간)부산문인협회 (야간)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사진아카데미(4층 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 심화반 (4층 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 기초반 (4층 연습실) 16시~17시50분	24 부산문인협회 제63회 부산예술제 제12회 지역문화교류전 전시 (3층, 4층 전시장) 051)632-5888 (오전후)부산미술협회의 제51회 부산미술대전 원서접수 051)632-2400	25 부산문인협회 제63회 부산예술제 제12회 지역문화교류전 전시 (3층, 4층 전시장) 051)632-5888
26 부산예술제 연예예술인협회(본선) 051)646-7343, 13시 차문화진흥원 야외광장	27 부산예술회관 기획전시 (부산미술원로작가초대전) (3층, 4층 전시장) 051)631-1377 웰빙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30분	28 부산예술회관 기획전시 (부산미술원로작가초대전) (3층, 4층 전시장) 051)631-1377 댄스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팡팡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17시30분~19시	29 부산예술회관 기획전시 (부산미술원로작가초대전) (3층, 4층 전시장) 051)631-1377 너도나도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아금 교실 (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교장구(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가곡교실(2층연습실) 14시30분~16시	30 부산예술회관 기획전시 (부산미술원로작가초대전) (3층, 4층 전시장) 051)631-1377 (오전후)부산미술협회의 제51회 부산미술대전 심사 051)632-2400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사진아카데미 (4층 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 심화반 (4층 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 기초반 (4층 연습실) 16시~17시50분	31 부산예술회관 기획전시 -11월2일까지- (부산미술원로작가초대전) (3층, 4층 전시장) 051)631-1377 (오전후)부산미술협회의 제51회 부산미술대전 심사 051)632-2400	



ART BUSAN MONTHLY VOL.244

2025 OCTOBER 10

CONTENTS

권두칼럼

08 삶의 회복을 위한 예술 처방 _ 이춘식

예서제서

- 10 부산아트빌리지 흥 축제
- 12 제63회 부산예술제
- 14 예술의 흔적
- 16 백광무용단 〈춤-만무의 향연〉 _ 백근영
- 18 기억해야 할 미래Ⅱ 〈그날의 함성, 영웅〉
- 20 서지영무용단 〈산조예찬〉 _ 정혜주
- 22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극단 우릿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는 뮤지컬쇼 '전화We복' _ 박준영
- 24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진사우회 마흔일곱번째 회원전
- 26 부산미술협회 -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작전
- 28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부산문인협회 시화전
- 30 목원 하회, 부산 100경으로 쌓아 올린 팔순의 여정
- 31 예술을 후원하다 - 안국선원, 특별상 기금 500만 원 전달

포토에세이

32 가을의 길목 _ 엄숙희



표지_강영순

개인전 및 부스전 10회
2024 아트뮤지엄 러 특별전(여주)
국내외 아트페어 12회 / 2인전 2회
기획전 및 초대 단체전 300여 회
2019 tvN 수목드라마 〈그녀의 사생활〉 협찬
현) 한국미협, 부산미협, 선과색, 부산현대작가회, 부산해운대미술가회 회원

interspace(틈)_Acrylic on canvas, 91.0×91.0cm, 2024



수필의 뜰

36 짐 선생 _ 송명화

인물포커스

40 부산남구문화재단 구본호 초대 대표이사 _ 정혜주

에인탐방

42 시인 주순보 _ 박준영

예술가열전 237

44 서양화가 여흥부 _ 백근영

손으로 쓴 문학

48 나에게 시를 쓰게 하네 _ 황인국

들어다보기

50 음악/ 러시아 낭만으로 문을 열다 _ 박주현

52 음악/ 부산의, 부산에 의한, 부산을 위한 출발 _ 류태형

54 음악/ Contra Flutes-숨결의 최저음, 경계를 깨다! _ 김윤선

56 미술/ 제2회 신진작가 아트쇼 '부산, 커넥티드' _ 백근영

기획연재

60 건축과 서예Ⅶ - 가장 묘관음사와 운여 김광업 _ 이현주

64 세상의窓 -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 국부 유출 年 30조 원
"직업엔 귀천 없으니, 우리 일자리 우리가 지켜야" _ 심수화

68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2화

「울며 헤진 부산항」과 일제강제동원역사관 _ 이용득

72 예총·전사·공연 뉴스

77 신간 안내

78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5년 10월 통권 244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 라-01255)

발행일_ 2025년 9월 18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옥(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해숙(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기자_ 박준영, 정혜주 객원기자_ 백근영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종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의 회복을 위한 예술 처방

글_ 이춘식 이춘식안과의원 원장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예사이자 농서인 『양화소록(養花小錄)』을 남긴 사람이다. 그는 꽃과 나무를 기르는 일을 무엇보다 사랑하여 하루 대부분을 화훼를 손질하며 보냈다고 한다. 때로는 피어난 꽃을 바라보며 시를 짓고, 자신이 가꾼 나무를 화폭에 담기도 했다. 『양화소록』에는 그가 오랜 세월 꽃나무를 돌보며 얻은 깨달음이 담겨 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 해도,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여 본래의 천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꽃나무를 통해 천성의 이치를 배우고 나아가 자신의 본성을 돌아보며 천하를 다스리는 법까지 깨닫게 된다.

이른 아침, 강희안은 이슬 맺힌 꽃잎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가지를 다듬었을 것이다. 바람 한 줄 기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줄기를 곧게 세우며, 그는 아마도 세상사에 얽매인 자신의 마음도 함께 가 다듬었을지 모른다. 화려한 꽃이 한 철을 보내고 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덧없음 속에서도 꽃 곳곳이 되살아나는 생명의 이치를 배웠을 것이다. 꽃과 나무는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준 조용한 가르침이었다.

니체는 예술이 염세와 허무의 감정을 넘어설 힘을 지녔다고 믿었다. 그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길들여져 체제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우주적 생명력과 하나 되어 건강하고 강인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예술은 바로 그 생명력과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같다. 음악의 화음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는 잠시나마 자신이란 경계를 잊고 '디오니소스적 황홀경'이라 부르는 도취 속에 빠져든다. 니체는 그런 순간에 예술이 메마르고 고갈된 우리의 에너지를 어루만져 회복시키고 다시 삶을 향한 활기를 불어넣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강희안이 꽃을 돌보며 본성을 들여다보았듯, 니체 또한 예술 속에서 인간의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했다. 한 사람은 자연의 섭리 속에서, 또 한 사람은 예술의 도취 속에서 삶의 본질을 찾았다. 비록 시대와 문화는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예술을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더 온전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사용의 급증과 장시간 모니터를 바라보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눈의 피로를 자주 호소한다. 시각은 인간이 외부 세계를 인지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약 80%를 담당하는 핵심 감각으로 원활한 사회적 활동과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비록 '본다'는 행위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감각이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디지털 미디어에 몰두해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는 것과 한 손에 부채를 들고 편안히 앉아 하염없이 꽃을 바라보는 일은 전혀 다른 심리적·신경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전자의 경우 뇌에서는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오히려 결핍감을 유발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꽃이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는 감정을 처리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신경 회로망이 활성화되며, 이는 정서적 지능을 높이고 내적 만족감과 자기 성찰을 유도한다.

이제 예술은 개인의 정서적 위안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예술과 문화가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연대를 촉진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질병 치료와 정서적 지원을 위해 Nature Prescription(자연 처방)과 Social Prescribing(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사가 환자에게 산림치유·교육·스포츠·예술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처방'하도록 지원하며, 그중 예술 활동은 핵심적인 항목으로 꼽힌다.

예술은 정신을 돌보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깊은 힘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창한 예술 활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마음을 돌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그저 꽃을 바라보는 '꽃멍'을 처방하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꽃과 하나가 된 듯 물아일체의 경지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일상의 고통과 온갖 시름이 스르르 사라진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희안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까지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과 울려 퍼지는 화음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보자. 잊고 있던 자기 안의 본성과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삶을 더욱 깊이 느끼고 살아갈 힘을 조금씩 되찾게 될 것이다.



박상용 무용단



DJ 뉴진스님



가수 나태주

2025 전국체육대회 연계 부산아트빌리지



2025. 10. 21. ~ 22.
영화의전당·부산콘서트홀

‘2025 전국체육대회’를 맞이하는 10월의 부산은 체육과 예술이 혼합된 무대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 이하 부산예총)은 이를 동안 영화의전당(대표이사 고인범)과 부산콘서트홀(대표 박민정)에서 ‘부산아트빌리지 흥 축제’라는 이름으로 스포츠와 예술이 어깨를 나란히 한 특별한 축제를 펼치며 시민과 방문객을 맞이한다.

21일 영화의전당 야외마당에는 아침부터 다양한 체험부스가 들어선다. 건축물 모형 만들기, 실크스크린, 악기체험, 테라리움 및 꽃다발 만들기 같은 예술체험이 준비되고, 태권도와 연극, 생활무용, 노래가 어우러진 버스킹 무대는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예정이다.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순환버스는 영화의전당에서 바다미술제와 감천문화마을, 영도의 아르떼뮤지엄과 모모스커피를 거쳐 다시 영화의전당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제공하며 관광과 예술을 동시

에 경험하게 한다. 이는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후가 되면 하늘연극장 로비에서 성대한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공연에는 금관양상블 [브이브라스]와 대동춤이 무대에 오른다. 이후 명사 특강 무대에는 야구선수로 부산을 대표했던 이대호가 오른다.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들려줄 그의 이야기는 선수로서의 경험을 넘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의 자세를 관객에게 전할 예정이다. 그리고 [리온트리오]의 클래식 연주로 특강의 울림을 더한다.

저녁에는 야외극장에서 <릴레이 콘서트>가 이어진다. 대북의 웅장한 울림으로 시작해 [부산예술회관 합창단], [박상용무용단]의 한국무용, 소프라노 고은솔의 무대가 차례로 펼쳐지고,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안형수와 DJ 뉴진스님

의 무대가 흥을 더한다.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순간, 축제의 이름이 왜 ‘흥’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22일 오후에는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다소니음악회>가 열린다. [사하구역성합창단]과 [해운대구어린이합창단], [남구역성합창단]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고, 동아대에서 준비한 태권도와 날피복춤, 스트릿댄스 등 각양각색의 예술이 어우러져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인다. 버스킹과 체험 프로그램도 계속 이루어져 공간 곳곳이 활기로 가득찰 예정이다.

<클래식 물결, 부산의 울림>이라는 제목의 메인 공연은 이번 축제의 절정을 장식한다. 지휘자 우나이 우레초가 이끄는 [유나이티드코리아오케스트라]가 무대를 이끌고, 오르가니스트 장대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바리톤 이승민, 베이스바리톤 길병민이 차례로 무대에 선다. 여기에 120명의 부산연합합창단이 합류해 장엄한 울림을 더한다.

1부는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작품번호 565」로 웅장하게 막을 올린다. 그 뒤를 슈트라우스 2세 「박쥐」 서곡이 경쾌한 리듬으로 채우고 왁스만의 「카르멘 판타지」가 화려하게 무대를 물들인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와 <일트로바토레>에 나오는 합창곡,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첫 번째 곡 「운명의 여신이어, 세계의 여왕이어」가 울려 퍼지며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강렬한 흐름을 완성한다.

2부에서는 프란츠 폰 주페의 「경기병 서곡」에 이어 영화 <여인의 향기> OST 「간발의 차이」,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의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등 대중에게 친숙한 울림을 전하고, 바리톤 이승민과 베이스바리톤 길병민의 이중창 「아름다운 나라」가 감동을 더한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주제가로 널리 알려진 「Champions」 합창에서 오케스

트라와 성악이 어우러지며 장대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클래식 무대가 아니라,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합창과 영화 음악이 한 무대에 집약된 음악 축제다.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선물은 예술문화의 도시 부산이 가진 문화적 깊이와 생동감을 음악으로 보여준다.

이들 동안 이어지는 흥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도시가 가진 에너지와 예술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다. 무대 위에서 피어날 음악과 춤, 그리고 관객들의 호응은 부산이 지닌 문화적 활력을 새롭게 각인시킬 것이다. 흥은 곧 부산의 얼굴이자,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로 이어진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베이스바리톤_길병민



오르가니스트_장대호



부산콘서트홀 전경

제63회 부산예술제 NEXT WAVE: 부산, 미래를 그린다

2025. 10. 12. ~ 11. 9.

부산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시청



부산예총(회장 오수연)이 주최하는 제63회 부산예술제의 주제는 'NEXT WAVE: 부산, 미래를 그린다'이다. 예술을 통한 사회 변화를 모색하며, 11개 장르의 예술이 어우러져 한 달여 동안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진다.

도시에서의 역할, 건축 간의 관계, 다양한 공간의 집합과 도시 일상 등을 사진으로 담아낸다. '젊은 건축가 작품展'과 제 41회 부산국제건축대전(일반국제공모·완공건축물 부문) 수상자도 함께 전시된다.

부산예총 개막식 및 축하공연

10. 29.(수)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가야금 병창으로 「사랑가」 「사철가」 「풍년노래」가 무대를 열고, 경상남도 무형유산인 <한량춤>을 선보인다. 기타리스트 함춘호, 팬플루티스트 김창균, 색소포니스트 고민석, 팝페라 가수 복지은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부산예술회관 합창단은 「우리 보헤미안 랩소디」로 하모니를 만들고, [헤이데이크루]의 퍼포먼스를 통해 부산 청년예술가들의 열정을 전한다.

부산국악협회 전통음악한마당

10. 19.(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가을 이야기'로 국악을 풀어낸다. 1부_애수의 가을밤(그리움)에서는 가야금·거문고 연주(구성 오은영, 오상훈), 사랑과 이별의 시조창이 이어진다. 2부_만추(풍년의 기쁨)에서는 가야금병창 「방아타령, 풍년놀이」, 경기민요 「풍년가, 소고춤(안무 이혜영), 「농부가, 왜지나칭칭나네, 웅해야」 등 풍년을 기리는 무대가 펼쳐진다.

부산건축가회 부산건축도시사진전

10. 15.(수) ~ 19.(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보통의 연결 : 붉은 실 이야기'란 주제로 건축의 조형성과

부산무용협회 부산무용예술제

10. 12.(일) 오후 6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김진홍전통춤보존회의 영혼을 위로하고 달래는 <지전무>

와, 김정미무용단의 <김평호류 남도소고춤>, 유은주 참춤용단의 국가 무형유산 <태평무>가 무대에 오른다. 이어 현대무용단 자유의 <본연>과 부산유니온발레단의 <Waltz Under the Stars>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른다.

부산문인협회 지역문학작품 교류전

10. 20.(월) ~ 25.(토)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전국 15개 광역시·특별시 문인단체가 참여해 지역 문학의 소중함과 가치를 공유한다. 문학의 독자성과 예술성을 시민과 나누며, 작가들에게는 창작 동기를 부여한다. 행사 기간에는 영화의전당 등 부산 명소를 둘러보는 투어도 진행된다.

부산미술협회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작전

10. 20.(월) ~ 25.(토) 부산시청 제1·2·3 전시실

‘아시아 현대미술의 파동’이라는 주제로, 한국·중국·일본 작가 60여 명이 참여해 세계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공유한다. 부산 작가들은 100호 이상의 대작과 실험적 형식의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수채화, 민화, 불화 등 다양한 장르가 전시된다.

부산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회원전

11. 4.(화) ~ 7.(금) 부산시청 제1·2·3 전시실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이자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가들이 한 해 동안 창작한 작품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사진예술을 향유한다. 올해는 407명이 참여하며 전시작 중 우수작품상을 선정·시상한다. 개막식은 11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부산연극협회 작강연극제

10. 15.(수)/21.(화)/23.(목)/25.(토) 소극장 6번출구

‘작지만 강하게’를 콘셉트로, 2~3인의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창작극·번역극·명작의 재해석 등 다양한 연극을 선보인다. 주요 공연은 프로젝트팀 이틀의 <모닥불>, 프로젝트그룹

울림 <아빠는 순찰 중>, 극단 우릿 <시절>, 극단 데일리드라마 <유산> 등이다.

부산연예예술인협회 부산실버가요제

10. 26.(일) 오후 3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만 65세 이상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요제이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서 대상을 향한 경연이 펼쳐지며, 시민에게는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부산음악협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1. 1.(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청년오케스트라가 주페의 「경기병 서곡」,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을 연주한다. 소프라노 양효정·윤비연 권소라 변향숙, 바리톤 윤풍원, 테너 김희수 전병호가 가곡부터 오페라, 칸시온(canción) 등 다채로운 무대를 펼친다.

부산꽃예술작가협회 꽃예술제

11. 7.(금) ~ 9.(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동서양의 꽃꽂이를 전통과 창작에 기반해 화려하게 선보인다. 동양예술의 여백과 선, 자연과의 조화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서양예술의 화려한 색감과 균형, 배합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다.

부산차문화진흥원 세계음다풍속

10. 26.(일) 오후 12시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

세계 각국의 차 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한다. 한국 다예(茶禮)·중국 다예(茶藝)·일본 다도(茶道)를 비롯해 차 문화의 예절과 전통을 느낄 수 있다. 차를 매개로 일상의 질서와 정신을 담아 내며, 명상과 같은 고요함까지 전한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예술의 길을 밝히는 빛나는 발자취

예술의 흔적

2025. 9. 15. 오전 11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흔적은 때로는 삶을 버티게 하는 기억이 되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이정표가 된다. 올해도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는 지역 원로 예술인들이 남긴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갈 길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025년 '예술의 흔적' 행사는 원로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영상을 나누고, 장르를 넘어 원로 예술가들이 서로 하나의 울림을 이루는 장으로 이어졌다.

행사의 시작으로 건축·국악·무용·문인·미술·사진·연극·연예예술·음악·꽃예술·차문화 등 각 협회별 회장과 원로 예술가들이 차례로 소개됐다. 오랜 세월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해 온 이들이 무대 앞에 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장르를 향한 존중이자, 지역 예술계를 지탱해 온 세월과 원로 예술가들에게 바치는 경의였다. 호명된 이들이 짧게 전한 인사말에는 각자 걸어온 예술의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 예술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주신 원로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의를 표했다. 아울러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더 나은 공연 환경을 마련하고, 예술과 사업 규모를 확대해 지역 예술계를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원로 예술인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공을 돌리며 말을 맺었다.

본 행사의 핵심은 원로 예술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이었다. 건축·국악·무용·문인·미술·사진·연극·연예예술·음악 등 9개 협회 원로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은 기술 발전, 장르의 발전, 후학에게 전

하는 메시지라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AI와 NFT,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이 일상이 된 시대, 예술가에게 필요한 태도를 묻자, 부산미술협회 민병일 원로는 “AI는 예술가의 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디자인 혁명”이라며 부산 예술이 지닌 포용성과 개방성을 드러냈다. 부산음악협회의 전이순 원로 또한 “거스를 수 없는 기술을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창작의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답변들은 원로들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흐름을 수용하며 여전히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장르의 발전에 대한 질문에 부산건축가회 장상진 원로는 “건축은 다른 예술을 흡수하며 상호보완을 통해 성장해 왔다”며, 이는 비단 건축뿐 아니라 모든 예술이 가져야 할 태도임을 일깨웠다. 부산문인협회 안유환 원로는 깊이 있는 작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술만이 지닌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후배 예술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 원로들은 따뜻한 울림을 건넸다. 부산무용협회 엄옥자 원로는 “예술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림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동체적 가치를 상기시켰다. 부산국악협회 김하정 원로는 “우리 것을 사랑하고 알리는 사람으로서 후배들을 늘 응원한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원로 예술가들의 눈빛은 세월을 지나왔음에도 여전히 뜨겁게 빛나고 있었고, 그 열정은 후배들에게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다.

한 세대가 남긴 흔적은 또 다른 세대의 길이 된다. 이날의 기록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후배 예술가들에게 든든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모두가 느꼈다. 인고의 세월 끝에 단단해진 원로들의 걸음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부산 예술 곳곳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후배 예술가들은 그 길 위에서 다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 편집실



부산건축가회



부산문인협회



부산사진작가협회



부산연극협회

2025 부산예술회관 기획공연

백광무용단 <춤-만무의 향연>

2025. 8. 22. 오후 7시 30분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가 기획한 공연 일환으로, 한국의 전통 '춤'에 대해서 보존과 계승을 통해 무형적 가치를 이어가고자 마련된 [백광무용단] <춤-만무의 향연>이 8월 22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자연의 흐름과 이치, 인간의 삶과 연계성을 섬세한 몸짓과 감정으로 풀어내며, 다채로운 장단 속 발디딤의 율동은 관객에게 강렬한 여운과 함께 우리 춤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선조들의 정신을 고스란히 전했다.

계절상 입추가 지난 시기에 여전히 뜨거운 햇살과 무더위 속 공연장은 시작 전부터 많은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은은한 조명 속에서 막이 오르자, 객석은 단숨에 어둡

에 잠겼고,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나직한 숨결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이번 공연의 초점은 전승된 한국 전통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관객에게 새롭게 선보이는 것에 있었다.

첫 무대는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뜻을 춤으로 표현한 <태평무>가 시작됐다. 왕과 왕비의 복식에서 느껴지는 궁중의 웅장하고 화려함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다. 절제된 군무 속 화려한 팔사위와 장중함은 흥과 멋을 조화롭게 이루며 다양한 가락에 맞춰 우아한 형태들로 발현됐다. 특히 다양한 발디딤새와 발을 구르는 동작의 절제미는 이 춤의 가장 큰 특징이자 백미로, 전체 대형은 느림에서 시



작하여 점차 빨라지는 장단과 흐름으로 표현함으로써, 춤의 전개에 긴장과 고조를 극대화했다. 마무리에 다다랐을 때 '기원'을 담은 행진은 객석에 긴 여운을 남겼다.

첫 공연 이후 이어진 두 번째 무대는 국가무형유산이자 우리나라 민속춤의 정수로 평가되는 <승무>가 펼쳐졌다. 불교적 색채가 강한 이 춤은 승복을 입고 고깔과 가사·장삼을 차용해 정립되었으며, 현세에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과 번뇌를 극복하고 승화함을 춤이라는 보편적 행위적 의미로 풀어냈다. 품위와 격조가 가장 높은 춤으로써, 춤추는 이의 내면세계를 춤사위와 북가락으로 투영하며, 몸짓의 연대적 흐름을 잘 표현했다. 호화로운 장삼놀음은 마치 자유롭게 나는 새가 바람을 일으켜 날아돌듯 자유롭게 무대 위를 거닐고, 절정에 이른 북의 장단은 강약을 조절하고 채로 연신 두드리면서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마치 내면세계로 회귀하는 듯 신들린 연주로 마무리되어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과 환호를 자아냈다.

세 번째 무대인 <교방장구춤>에서는 예인(藝人)들이 각양각색의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장구를 어깨에 둘러맨 채 경기소리 흥에 맞춰 독특한 걸음걸이와 장구춤을 선보였다. 이는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키게 했고, 화려함속 교양과 풍류가 더해진 다양한 표정과 춤사위는 각자의 개성과 행태를 더욱 뽐냈다. 전체 군무에서는 함께 또는 다르게 형태의 다양성을 적용하여 통일감과 개별성을 선명하게 구성함으로써, 춤의 특징과 찰나의 순간을 멋으로 표현해 내기에 충분한 무대였다.

이어서 펼쳐진 독무로 진행된 <영남입춤>은 김진홍류 영남입춤으로, '서다'라는 의미의 입춤 본연을 잘 드러내는 춤을 선보였다. 인물의 절제된 움직임 속 내면의 심리적 변화에 따른 춤선의 변화와 표정을 돋보이게 구현하여 다채롭게 구성한 무대였다. 특히, 초반의 쓸쓸한 감정선은 후반부로 갈



수록 흥으로 이어졌고, 절제된 표정과 군더더기 없는 춤선은 현란하지 않지만, 고요함속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배치하며 깊이 있는 울림을 전했다.

마지막 무대는 팽과리 또는 징을 뜻하는 '진쇠'와 춤을 엮은 <진쇠춤>으로, 절묘한 가락과 소리에 어우러지게 구현했다. 붉은색 복식을 한 무인(舞人)의 등장은 주술적 의미에 신을 불러들이고, 잡귀를 물러내어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노래하고 제사를 지낼 때 추어진 춤은 역동적 안무와 음향으로 그 의미를 부각했다. 공연이 막을 내리고 오픈 콜을 진행했을 때는 춤꾼들의 인사와 행동에 따라 조용했던 객석이 일순간 축제처럼 오랜 환호를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다. 오늘날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K-문화의 중요한 축은 단연 '춤'이다. 오랜 시간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를 다져온 전통춤의 가치와 발전은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글_백근영



광복 80주년 기념공연

기억해야 할 미래II

그날의 함성, 영웅

2025. 8. 31.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늦여름의 바람이 아직 따뜻함을 머금은 오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은 이른 저녁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발걸음으로 차츰 채워졌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로비에는 설렘과 동시에 묵직한 긴장감이 흘렀다.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미래II>라는 제목이 이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부산국악협회(회장 강명옥)가 주최 주관한 본 공연은 광복 80 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기획자 김명수는 “잊혀져 가는 사람과 역사를 다시 불러내어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기억으로 남기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대는 교과서 속 위인들뿐 아니라 이름 없는 민중, 전쟁 속으로 사라진 참전군인과 강제로 끌려간 징용 피해자들, 그리고 그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낸 평범한 이들과 함께 불러냈다.

공연의 첫 올림은 「아리랑」을 구음시나위로 풀어낸 무대였다. 거문고와 대금, 해금과 아쟁, 그리고 구음이 한데 어우러지며 울려 퍼졌다. 창극반주단 [홍향(紅香)]의 연주자들은 전통의 깊은 결을 현대적 감각으로 끌어내어 비통함과 희망이 맞물린 선율을 만들었다. 구음 정선희와 정효선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억눌린 시대를 뚫고 나온 호흡 같았다. 징과 장구에서 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객석의 심장도 함께 떨렸고, 음악은 오래전 기억을 오늘의 호흡으로 되살려냈다.

이어진 무대는 전우실 작곡의 「영웅을 위하여」였다. [부산국악협회국악관현악단]의 웅장한 올림 속에서 지휘자 김경수의 손끝은 세밀한 호흡을 끌어냈다. 이 곡은 내 옆의 평범한 이웃이나 타인 또한 영웅일 수 있음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화려한 서사가 아니라 광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쓴 무명의 이웃과 동료로 향한 헌정의 노래였으며,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삶을 향한 선율은 묵직하게 다가왔다. 관객들은 눈을 감고 사라져간 얼굴들을 떠올리며 그 순간을 기억하려 애쓰는 듯했다.

세 번째 무대는 김백천의 「순국의 혼」이었다. 잃어버린 나라의 슬픔을 애절하게 그리던 선율은 점차 투쟁과 투혼의 기세로 치솟으며 국악관현악의 힘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다. 피리와 해금의 긴장감 어린 흐름은 눈물의 강을 건너듯

이어졌고, 타악기의 강렬한 박동은 용기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 음악은 슬픔에서 희망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되었고, 그 올림은 독립투사들의 결연한 용기를 되살려서 들려주는 듯했다.

마지막 무대는 「아리랑 환상곡」에 스코틀랜드 민요 선율을 섞고 「애국가」 가사를 더한 「아리랑과 애국가」였다. 국악과 서양 성악이 어우러진 선율은 국경과 시대를 넘어선 올림을 전했다. 네 명의 남성 성악가가 무대에 오르자 공연장은 다시 하나의 호흡으로 모였다. 「아리랑」의 변주는 전통의 깊이를 드러냈고, 「애국가」의 합창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짐이 되었다.

이번 공연은 국악관현악에 클래식적 구성과 합창이 결합해 새로운 올림을 만들었다.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이 조합은 신선했고, 무대와 스크린이 함께 어우러지며 관객은 역사의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스크린에 비친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은 또 하나의 무대였다. 그중에는 꽃다운 10대 나이에 스러져간 이들도 있었는데,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눈빛은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처럼 다가왔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공연이 전한 메시지는 기억 속에 품어 미래로 나아가야 할 가치를 다시 물게 했다.

문의_051)644-5211 / 편집실



몸짓으로 읊조린 계절의 미학

2025 부산예술회관 기획공연
서지영무용단 <산조예찬>

2025. 8. 28.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평론가들이 '우리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관객들은 '한국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를 생각한다. 크고 화려한 무대가 주도하는 시대에 세상의 흐름과는 별개의 세계 속에서 존속해 온 한국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춤은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선 깊은 상징과 전통의 언어, 곧 '몸짓말'이라고도 불린다. 말로 전하기 전에 몸짓으로 먼저 표현되는 것이 춤의 세계이다. 기록보다 구전이 더 정확하다고 하듯 몸으로 각인되어 전해지는 춤의 언어는 더욱 깊은 의미를 품는다. 느리고 무거우며 맺고 푸는 호흡과도 같은 한국춤은 '말보다 깊고, 기억보다 오래된 원초적 울림'으로 다가온다.

사계절을 품은 서지영무용단의 <산조예찬>은 화려한 장식을 배제하고 전통의 흐름과 현대적 맥락을 잇는 무대를 선보였다. 솔로 무용수의 몸짓에 집중해 계절의 변화를 한순간씩 음미할 수 있도록 구성해 강렬한 인상보다는 읊조리듯 차근차근 헤아려가는 방식이 한국춤을 감상하고 이해하기에 더욱 적합하게 다가왔다.

첫 무대는 황무봉류 산조춤으로 막을 올렸다. 황무봉(1930~1995)은 신무용의 대가로서 해방 이후 약 40년간 예



- 1 봄, 휘날리는 벚꽃 사이로_김혜윤
- 2 여름, 대숲에 부는 바람_윤정미
- 3 가을, 달을 품고 꿈속을 거닐다_이민선
- 4 겨울, 기다림의 끝자락, 동백_조현영
- 5 그리고... 춤, 그 너머로_서지영
- 6 그리고... 춤, 그 너머로_허경미



술의 불모지였던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 무용사의 큰 줄기를 형성한 인물이다. 그는 전통춤을 기반으로 하되 음악·문학·발레·남방춤 등 필요한 요소를 폭넓게 수용해 자신만의 춤 세계를 구축했다. 이날은 김혜운 무용수가 박성옥 류 철가야금 산조에 맞춰 〈봄, 휘날리는 벚꽃 사이로〉를 선보였다. 부드러운 선율 속에서 벚꽃이 흩날리듯 섬세하고 절제된 여성미를 우아하게 표현하며, 따스한 봄날의 정취로 관객들을 매혹시켰다.

이어진 〈여름, 대숲에 부는 바람〉에서는 통소와 거문고 반주에 맞춰 윤정미가 최현류 부채산조를 펼쳤다.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연극적 요소가 필요한 작품으로, 그녀의 밝은 표정과 날렵하고 역동적인 춤사위는 대숲에 이는 바람을 섬세한 선과 형으로 형상화했다. 근대에서 현대 한국춤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최현(1929~2002)은 산조라는 음악 안에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한국적 정서를 품격 높은 창작춤으로 승화시킨 인물이다. 이날 무대에서도 부채를 활용한 신명 넘치는 동작이 악기의 구성진 선율과 어우러져 활달한 한국춤의 매력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작품 〈가을, 달을 품고 꿈속을 거닐다〉에서는 원장현류 대금산조에 맞춰 이민선이 무대에 올랐다. 소도구를 배제하고 맨손춤만으로 담백하게 가을 달밤의 정취를 그려냈다. 교태를 걷어낸 꾸밈없는 움직임은 서늘하면서도 품격

있는 가을밤의 기운을 자아냈다.

네 번째 무대는 〈겨울, 기다림의 끝자락, 동백〉.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에 맞춰 조현영이 동백꽃의 고고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무겁지만 담박하고 유려한 춤사위는 한국춤의 멋과 한, 그리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깊이 드러냈다.

마지막 작품 〈그리고... 춤, 그 너머로〉에서는 허경미가 무대를 이끌었다. 가벼운 어깨춤이 물 흐르듯 이어지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몸짓을 자유롭게 흘러보냈다.

한국춤에는 큰 동작이 없다. 현란하거나 빠르지도 않다. 단지 손짓, 눈짓, 발짓, 어깨짓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모든 것이 인간의 감정이며, 무용수들은 각자의 감성을 담아 자유롭게 춤사위를 펼친다. 계절의 흐름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전통에서 출발해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열린 무대로 다가왔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관객과 함께하는 〈시민대동춤〉이 이어졌다. 약 한 시간 동안 6명의 무용수가 몸짓으로 건넨 이야기에 관객들도 화답하듯 자리에서 일어나 저마다의 춤으로 호응했다. 한국춤은 결국 공동체의 삶 속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엮어 만들어가는 예술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글_정혜주



3



4



5



6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극단 우릿,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는 뮤지컬쇼 '전화We복'

2025. 8. 27.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음악이 울려 퍼지자 스크린에는 두 남자의 사진과 익살스러운 영상이 펼쳐졌다. 객석에 미묘하게 감돌던 긴장감은 서서히 풀렸고 두 명의 DJ가 무대에 올라 “전화We복”을 외치며 보이는 라디오 연극의 막을 올렸다. 매끄러운 진행과 능청스러운 연기에 관객은 금세 여유를 찾았고 어느새 공연장이 아닌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듯한 몰입이 이루어졌다.

무대는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구성으로 이야기와 음악의 힘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화려한 장치 대신 배우들의 연기와 목소리, 표정 그리고 노래가 중심이 되어 사연 하나하나가 관객에게 직접 다가왔다. 라디오 속 코너 형식으로 관객의 참여를 이끄는 구성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신선한 방식이었다. 사연이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살아 움직일 때 객석은 곧 공감의 장으로 변했다. 작은 이야기 속 올림은 감동과 웃음으로 번져갔다.





공연 중반부에는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다. 특히 엄마와 딸의 사연은 많은 공감을 끌어냈다. 사춘기를 겪는 자녀와 부모 간의 마찰은 누구나 겪는 흔한 일이다. 그러나 그 다툼과 아픔의 시간을 함께 이겨내면 더 깊은 이해가 남는다. 그 메시지가 노래와 함께 흐를 때 관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기억과 일상을 떠올리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가 울려 퍼졌을 때 객석은 더욱 진한 감정에 젖었다. 엄마 역과 딸 역을 맡은 배우들은 실제로 큰 나이 차이가 없었지만 연기만으로도 진짜 모녀처럼 보일 만큼 몰입을 끌어냈다.

마냥 눈물샘을 자극하는 무대만으로 채워지지도 않았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게 하는 흥겨운 장면도 이어졌다. 취준생의 애환을 ‘막걸리’라는 소재로 담아낸 무대는 슬픈 내용이지만 배우들의 과장된 움직임을 통해 웃음을 잃지 않게 하였고 영탁의 「막걸리 한잔」으로 무대를 이어갔다. 이어 로맨틱한 넘버에서는 숨을 죽이며 무대의 두근거림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로제의 「APT」와 윤수일의 「아파트」를 결합한 무대는 참신하면서도 세대 차이를 극복해 내는 [극단 우릿]만의 방식을 또렷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연은 단순히 연기와 노래에만 머물지 않았다.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고민을 다섯 글자로 답하기’ 코너에서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해 무대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또한 ‘막걸리 삼행시’ 코너에서 아이 관객이 선보인 막걸리 삼행시는 무대와 객석 모두의 웃음을 터트리며 공연장의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었다.

극단 우릿은 이번 무대에서 배우들의 다채로운 역량을 선보였다. 일부 단원은 1인 다역을 소화하며 인물마다 몰입도 높은 연기를 펼쳤다. 절제된 동작의 춤은 관객을 무대로 끌어들이는 장치가 되었고, 공연이 후반으로 갈수록 ‘우릿하다’라는 이름의 의미, 곧 ‘감동을 느껴 떨리는 상태’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배우들이 직접 부른 노래와 진심 어린 대사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으며, 무대는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로 채워졌다.

마지막을 장식한 극단 우릿의 자작곡 「전화위복 송」은 공연장을 하나로 이어주었다. 흥겹고 따뜻한 멜로디에 자연스럽게 손뼉이 이어졌고, 그 울림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일부 관객은 공연장을 나서며 흥얼거렸고, 그 선율은 잔잔한 파동처럼 마음속에 남았다. 일상 속 누구나 겪는 고민을 응원과 희망의 노래로 풀어낸 무대는 위기가 반드시 좌절로 끝나지않은 있음을 전하는 듯했다. <전화위복>은 제목 그대로 진정한 ‘전화위복’이었다.

글_박준영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진사우회 마흔일곱번째 회원전

2025. 9. 22. ~ 28.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3·4층

사진은 말이나 글보다 직관적이며 즉각적이라는 특징을 지녔다. 근본적으로 '기록'과 '표현'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매체로서, 보는 이에게 감각과 경험을 자극하며 새로운 공감을 끌어낸다. 9월 22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열리는 '진사우회 마흔일곱번째 회원전'에는 단순히 풍경과 지나간 이미지들의 나열이 아닌, 우리가 미처 지나쳐버린 일상 속 장면, 순간들을 포착하여 이에 대한 예술적 독창성의 다층적 의미를 투영했다. 이와 더불어 관객에게 사진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유발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사진예술의 의미와 사진 분야 인구의 저변 확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사우회] 소속작가 15인은 올해 촬영한 사진 창작활동 결과물 총 43점의 사진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참여작가의 여러 창작 의도가 작품에 집약된 이번 전시는 국내

외의 자연과 도시 이미지, 사람들의 삶과 일상의 풍경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냈다. 48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진사우회는 이전부터 수준 높은 사진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여왔다. 이밖에 다양한 관련 활동을 통해 사진 분야에 대한 이론과 표현력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사진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김상한의 「시각」은 푸른 벽 속 바다를 향해 중인 배와 갈매기, 구름에 대비적으로 붉은 장미꽃이 인상적으로 함께 배치되어 해양도시 부산의 상징적 풍경과 계절감이 눈길을 끈다. 이우석의 「빛이 스민 거리」는 흑백 톤의 뉴욕 도시 골목 속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멈춰진 인물 사이 스며진 빛에 주목해 관계 속 이중성을 담아냈다. 김미경 「머뭇의 시간들」은 호수 속에 잠긴 배와 나뭇가지가 푸른 색감과 오묘

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우영 「고요와 화려」는 다양한 색감을 가진 원형의 튜립밭과 지평선 속 사라지는 일몰의 풍경이 조화롭게 펼쳐졌다. 전시된 사진 작품들은 각자의 시각에 입각한 지역의 특징과 독창적 해석으로 풀어낸 이미지를 다채롭게 투영했다.

전시일정 외에도 관객에게 사진 관련 활동을 동시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 이목을 끌었다. 이틀간 2회씩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마트폰 사진에 스마트함을 더하다'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스마트폰과 DSLR 카메라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 촬영팁 등을 다루는 체험으로, 이후에는 인생 네 컷 촬영과 인화도 할 수 있어 참여 관객들의 호응을 끌어들였다.

단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 일환으로 매년 저소득 노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무료 가족·영정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액자로 만들어 나눠주는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에 이바지해 왔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사진 전시를 넘어, 예술·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전시를 찾은 관객들과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사진 예술의 의미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진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꾀했다. 진사우회 마흔일곱번째 회원전은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지역의 계절과 과거 지나간 순간을 한 장의 사진으로 회상시키면서 이를 미래에 기억하게 하는 전시로 그 가치는 영원히 계속 이어질 것이다.

문의_010-4840-2702 / 편집실



1 김미경_머뭇의 시간들 2 엄동인_미안마 스케치
3 이우석_빛이 스민 거리 4 김상한_시각 5 김우영_고요와 화려

부산미술협회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 & 부산미술대작전

2025. 10. 20. ~ 25.

부산시청 제1·2·3전시실

각 나라의 예술적 감각과 동시대 국제 미술계 흐름을 공유하는 장으로, 미술계의 긴밀한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작전'이 오는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부산시청 제1·2·3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와 (사)부산미술협회(회장 최정락)가 주최하고,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작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개막식은 10월 20일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오후 5시에 열린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 현대미술의 파동'을 주제로, 부산 지역 작가 35명과 해외자매도시인 중국·일본 작가 2개국 25여 명이 참여하여, 총 60여 명 작가의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회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수채화, 민화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담은 작품들을 통하여, 동시대 미술의 현 주소를 한눈에 조망할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자리로, 동아시아 국가를 연결하고 순환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1 장요우쿠이ZHANGYOUKUI_看海(Watch the Sea) 2 강이수_바람의 숲, 스테인레스, 대리석, 마천석, 세라믹, 2023
 3 박용대_부산의 빛-영도남항, 162.2×97.0cm, Oil color on canvas, 2015 4 쉬거XUGE_The Guardian's Body
 5 임창석_현실, 이상의 경계_100호F, Acrylic on canvas, 2025 6 김다희_Impossible cubes2, 146×98cm, Collagraph, Chincolle, 2024
 7 백근영_숲-시선視線 Forest-Gaze, 193.9×130.3cm, 창지에 수간채색, 아크릴, 오일파스텔, 2024
 8 송영명_추념, 130.3×130.3cm, Oil color on canvas, 2008

참여작가들은 다른 나라의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창의적인 결과물로 이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지닌 전시의 숨은 의도들은 시간이 흐르며 퍼져나가 세계 여러 나라를 연결하고 하나로 모으는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사)부산미술협회는 이번 교류전을 통해 해외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예술 교류를 더욱 활발하고 견고하게 이어가는 한편,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미술 네트워크로 재도약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산의 예술적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지역 시민들에게는 더욱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초청작가 8명과 부산 작가들의 미술 담론의 장을 마련해 단순히 작품을 선보이는 형식을 넘어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 이를 통해 작가들 간의 직접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 부산미술대작전은 지역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창작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에게는 장르의 다양성과 전시 규모의 확장을 경험하게 한다. 대형 작품 중심의 구성은 부산 미술의 지역적 역동성과 고유한 정체성을 보여주며, 지역 작가들의 창작 의지를 북돋우고 부산 미술이 지닌 실험정신과 예술적 에너지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문의_051)632-2400 / 편집실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부산문인협회 시화전

2025. 9. 8. ~ 14.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부산 시인, 여름을 지나 가을을 쓴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드리우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R.M. 릴케, 「가을날」 중)

이번 여름은 유난히 길다. 시화전이 막을 올린 9월 8일에도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돈다. 가장 뜨거운 계절 속에 시간이 멈춘 것일까. 아니면 시인들의 뜨거운 마음이 한 줄, 두 줄 tap처럼 쌓여 작품 속에 담겼기 때문일까.

부산예술회관 전시장에서 펼쳐진 부산문인협회 시화전은 여름을 한 아름 낚아채 가을로 건네는 자리였다. 회원 40명이 참여해 시와 사진을 한 액자에 담아내며 관람객의 발걸음을 조용히 이끌었다.

가을을 맞이하는 시인들의 시선

박희자 시인은 「가을이 오는 소리」에서 갈대숲에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가을을 반겼다.

“감빛 노을에/ 그림자마저 곱게 물든 오후/ 내 곁에 내
린/ 가을 온기/ 두 손 모아 답습니다”

(박희자, 「가을이 오는 소리」 중)

이형주 시인은 인생의 가을날 ‘빨간대문’을 활짝 열어 따뜻한 겨울을 준비했고, 정인호는 인간의 욕망과 집착을 돌아보며 성찰의 목소리를 더했다. 김종대는 반복되는 ‘내 마음’의 고백을 통해 상처와 다짐을 노래해 관람객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삶의 무게를 새긴 시

시화전에는 부산의 풍경과 함께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겼다. 신진경의 「깡깡이 아지매」는 영도 조선소에서 삶을 이어간 여성들의 고단한 발자취를 드러냈다.

“전쟁의 뒤안길에 마디마디 끊어진 삶/(중략)/ 녹슨 배 겹질 벗겨야 떨어지는 한 끼 밥”

(신진경, 「깡깡이 아지매」 중)

박혜숙은 다대포의 해무를 ‘불편함’이 아닌 ‘비밀스러운 마사지’로 표현하며 연인들을 부르고, 이용철은 「어깨동무」에서 함께 버텨온 삶의 온기를 담담히 그려냈다.

“비틀거리며 살았지만 / 남을 비틀지는 않았다네”

(이용철, 「어깨동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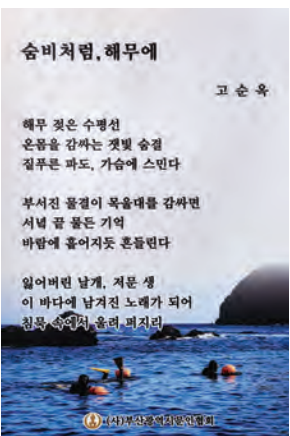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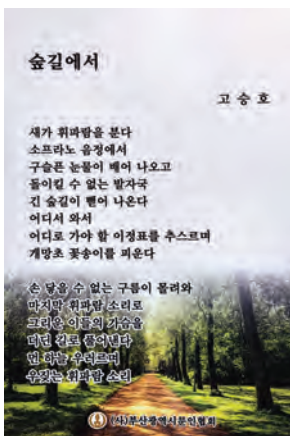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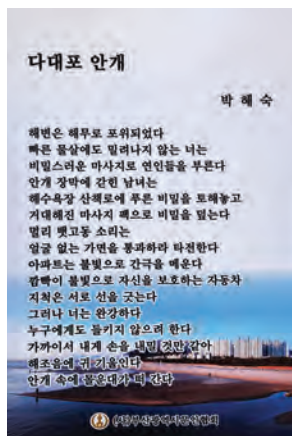
부산의 시, 삶과 계절을 담다

우리는 어린 시절 누구나 시를 쓴다. 억지로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마주친 새와 구름, 친구와 놀이가 마음속에 구슬처럼 꿰어져 자연스레 글이 된다. 쉽고 간결하며 해맑고 호기심이 가득한 그 동시는 어른이 되면서 서서히 사라진다. 그러나 시인은 세상의 신비와 따뜻함을 놓치지 않고, 삶의 여정과 무게를 차곡차곡 단어 속에 담아낸다. 마당에 핀 꽃 같은 동시는 무럭무럭 자라 하늘의 별까지 닿는다. 시와 마주앉아 속내를 털어놓듯 대화하는 시인들이 아름답다.

이번 전시에는 고순옥, 고승호, 구순옥, 김순경, 김지원, 문인선, 박미화, 박혜숙, 배동순, 설현숙, 손무경, 송명화, 이석래, 이숙례, 이용철, 이형주, 정은아, 주순보, 주희령, 최은복 시인이 참여했다.

문인들의 손끝에서 빚어진 시는 부산의 풍경, 삶의 여정, 그리고 섬세하게 포착한 계절과 사물들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긴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에서 만난 이번 시화전은 관람객에게 삶을 성찰하고 계절을 맞이하는 따뜻한 시간을 선사했다.

문의_051)632-5888 / 편집실



목원 허휘, 부산 100경으로 쌓아 올린 팔순의 여정

2025. 10. 13. ~ 19. 부산시청 제2·3 전시실

부산의 자연과 도시를 수묵채색화로 그려온 허휘 화백이 팔순을 맞아 제70회 개인전 '부산의 정수, 팔순의 여정展'을 연다. 이번 전시는 오랜 세월 화업을 통해 축적된 예술세계와 부산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다.

허휘는 2003년부터 연작 「부산 100경」을 통해 자갈치 시장, 용두산, 을숙도, 금정산 석불사, 벡스코, 누리마루 등 부산의 풍경을 꾸준히 기록해 왔다. 수묵채색화 기법으로 담아낸 이 작품들은 도시의 역동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드러내며, 사라질지도 모를 부산의 모습을 소중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는 한국화를 관념적 전통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현대인의 삶과 지역 풍경 속으로 확장시켜 왔다. 명소뿐 아니라 외진 골목과 자연까지 발로 누비며 발견한 부산의 일상은 작품 속에서 현실적 감수성과 미적 울림으로 되살아난다.

이번 전시는 팔순의 예술 여정을 총망라한 대규모 회고전이다. 100호 이상 대작 20여 점을 비롯해 족자화, 선면화, 도자화, 인물화, 병풍화 등 300여 점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작품 속에 스민 부산 사람들의 꿈과 자유, 그리고 작가가 평생 간직해 온 부산에 대한 애정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_010-2895-4148 / 편집실

1 금련산에서 보다- 바다_장지, 먹, 채색, 240×160cm, 2021

2 금샘과 동해 일출_한지, 먹, 채색, 230×162cm, 2018





안국선원, 특별상 기금 500만 원 전달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재)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이 부산예총에 특별상 기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힘을 보탰다.

안국선원은 전시·공연·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불자를 위한 문화 포교에 앞장서 왔다. 2004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기획전에 참여한 부산 작가 정혜련의 작품 활동비를 지원하며, 세계 무대에서 부산 예술의 위상을 알리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화두 참구를 통한 간화선 수행법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수불 스님은 국내외 13개 사찰을 이끌며 한국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원장을 비롯해 불교신문사 사장, 범어사 주지,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부산불교방송 사장 등을 역임하며 불교문화 연구와 방송 포교에 헌신했다. 더 나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 사회적 실천에도 적극 나서며 종교를 넘어선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부산예술상 특별상 부문 시상 상금으로 사용되며, 만 49세 미만으로 부산에서 활발히 창작 활동을 펼치는 예술인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8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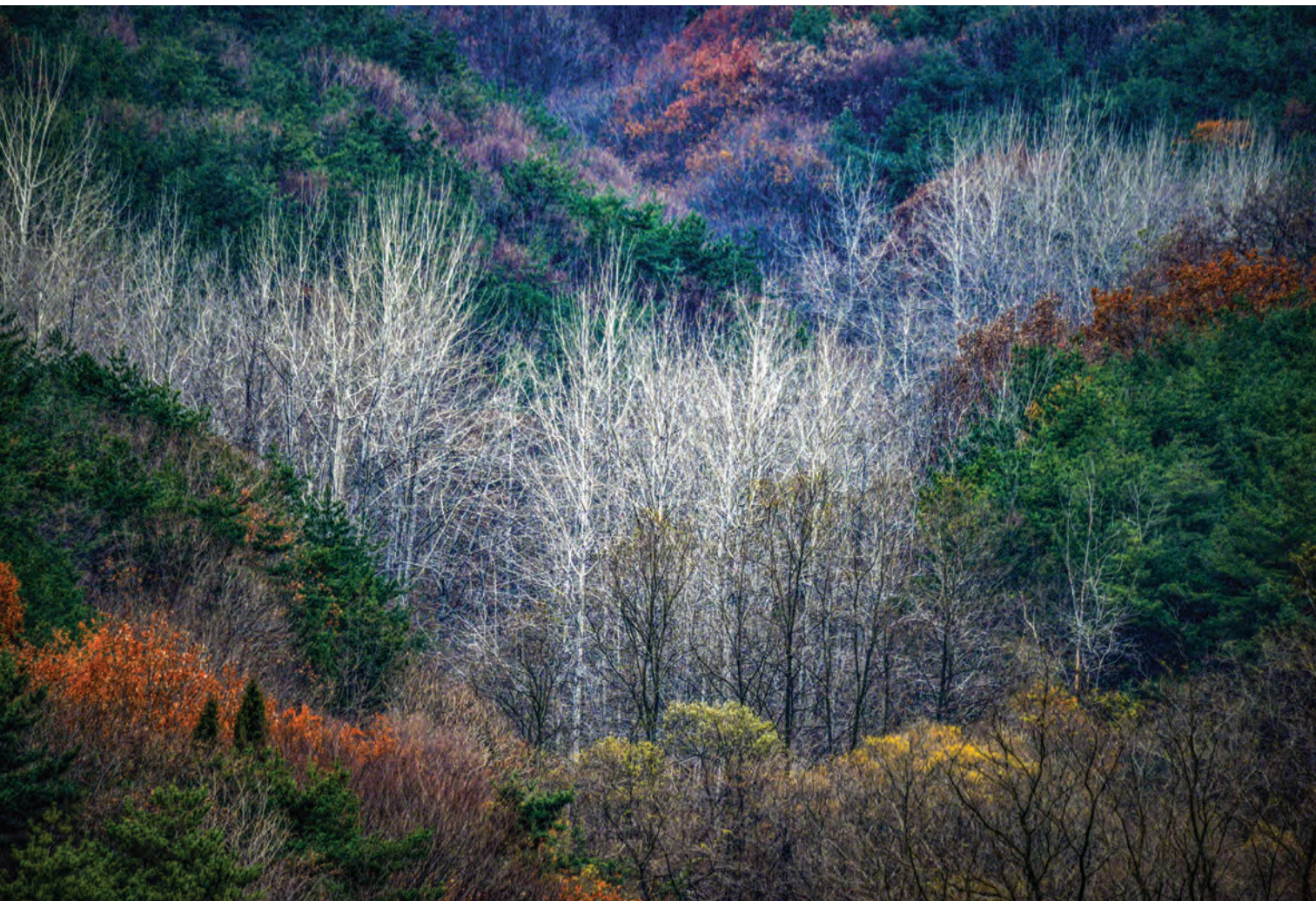
/ 편집실



가을의 길목

10월의 가을은
단풍과 낙엽, 숲과 물결, 햇살과 풍경이 어우러져
삶에 따스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그 속에서 나는 자연이 주는 설렘과 안식을 느끼며
행복의 이유를 찾습니다.

글 사진 엄숙희 부산사진작가협회 기획간사





짐 선생

떠나는 것은 오래 잠겨 있던 창문을 여는 일이다. 익숙한 공기 속에서 숨 쉬던 우리가, 어느 날 문득 그 공기가 무겁게 느껴질 때, 짐을 챙긴다. 마음에 고인 물을 흔들어주는 낯선 바람을 맞이하러 나서는 길, 뒤에서 아파트 문이 찰칵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음을 단단히 여미게 한다. 늘 뒤탈 없는 일탈을 꿈꾸지만 그 일이 어디에만하던가. 올여름, 계획은 무성했어도 무더위와 몇 군데 청탁과 계획서에 묶여 작은 내 책방에 붙박이고 말았다.

짐 선생이 오늘 조지아로 떠났다. 나의 부러움까지 없어 주렁주렁 짐을 지고 딸래미와 함께 미지의 나라를 걸으며 세상과 소통하고자 잠시 부산의 우리 일당을 잊어버리고 다른 관계를 찾아 발을 내디뎠다. 짐 선생이 떠난다는 것을 알았기에



며칠 전 우리 모임은 더 소중하고 조금 들떴다. 함께 가진 못하여도 떠난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도 언젠가 삶의 자물쇠를 풀 수 있음을, 홀연히 버리고 나를 묶은 그물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음을 자신에게 다짐하는 시간이 된다.

짐 선생이 선언했다. “맡고 있던 일 다 정리하고 내일 비행기를 탑니다.”라고 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바람 냄새가 났다. 시간을 쪼개가면서 책을 편집하고 자료를 만들어주고, 일을 기획하던 그 봉사의 시간을 다 떨어버리고 훌가분하게 떠나겠다는 그녀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냈다. 그녀를 생각하면 떠남이란 낱말과 커다란 가방이 떠오른다. 세계 곳곳을 자유여행으로 발품 팔아 다니는 글로벌 인재이니 가방 싸기와 가방 풀기에는 달인의 경지에 올랐으리라. 버리고 흘리고 털어 날려버릴 것들이 정리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흥미롭다. 그래도 그녀, 짐 선생이 버리지 못할 것이 있음을 안다.

그녀의 짐은 어떤 때는 등에 있고, 어떤 때는 양손에도 있다. 모임 중에도 혹시 뭐 있냐고 물으면 만물상처럼 냉큼 가방에서 꺼내주는데 그중 예상치 못하게 소환되는 것이 비닐 팩이다. 강아지를 동반한 것도 아닌데 저건 무슨 소용일까 싶지만 이제 너도나도 가지고 다녀야겠다고 인정을 하게 된 것이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본받기 어려운 일이라 싶으니.

일찌감치 식당에 도착하였다. 근사한 요리에 신나는 이야깃거리까지 풀어놓으니 과연 잔치판이다. 음식은 푸짐했고, 금세 동난 먹음직한 반찬은 다시 채워져 모자람이 없었다. 배는 불렀고, 먹지 않은 음식이 잔뜩 남았다. 직원이 옆 테이블을 치우고 있다. 손님들이 볼 수 있게 테이블에서 남은 음식들을 한 그릇에 부어 담는다. 잔반을 다시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시켜주는 몸짓이리라. 양이 수월치 않을 텐데 저 음식은 어디로 갈까. 음식점 주인에게는 재료비에 인건비에 자릿세에 거기다 잔반 치우는 경비까지 짐을 지우니 겨우 달리는 사람 발목에 모래자루 묶어주는 격이 아닌가.

짐 선생이 비닐 팩을 꺼냈고, 남은 음식들을 잘 갈무리하여 봉지에 담았다. 주요리가 많이 남거나 집에서 먹기 위해 주인에게 포장을 주문하는 때 말고는 보기 힘든 광경이다. 그녀가 종종 하는 일이라 그러려니 했지만 오늘은 다들 머리에 형광등이 켜졌다. 여럿이 당뇨 관리하느라 남긴 밥이 한 주머니나 되고, 잡채며 마른 반찬에 김치까지 한 차례 정리가 끝나고, 최 작가가 짐 선생에게 비닐 팩을 얻어 짠 것과 국물은 빼고 나머지 잔반을 챙긴다. 그녀는 농장에서 청계 몇 마리를 기르고 있다.

저녁에 김 작가는 식은 밥을 덥히고, 최 작가네 닭들은 이 식당의 찬을 맛보겠다. 언젠가부터 나는 김 교장, 김 박사라 부르던 김 작가를 김 선생으로 불렀다. 그녀는 한 학교를 책임지던장이었고, 예순 개나 되는 나라를 체험한 여행가이자 작가이고, 닭을 치는 최 작가가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평론가이며 박사 학위를 가진 인텔리다. 둘 다 베풀고 나누는 일에는 남 먼저 나서는 마음이 푸진 사람들이다. 식당에서 잔반을 남기고 나갈 때 죄책감마저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만은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작은 팩을 어디서 구하느냐고 묻는 우리에게 김 선생이 말을 꺼냈다.

사실 남은 음식을 챙기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거나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타지마할을 방문했을 때 입구에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먹다 남겨 봉지에 넣은 빵을 가까이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넣었어요. 정말 주위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 순간 아이들이 우루루 달려들어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한 아이가 그 봉지를 뺏길까 봐 입에 가득 물었고, 더 큰 아이가 손가락으로 우악스럽게 그걸 빼서 빵을 자기 입에 넣더라구요. 아우성치는 그 아이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인정 많은 박 작가가 눈물을 흘쩍거렸다. 김 작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배낭여행 전문가인지라 세상 곳곳의 생활 모습을 얼마나 실감 나게 보았을까. 진지한 체험 이야기와 여과 없이 계속되었다. 지구촌 곳곳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못 살고 못 먹고 힘든지 이야기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 여행사에 의뢰해 패키지여행을 즐기고, 유명한 관광지만 돌아보는 여행에 익숙한 다른 작가들은 입을 꼭 다물었다.

모르는 게 아니지만 다들 눈 감고, 귀 막고 산다. 내 안의 작은 상처에는 눈물 흘려도 타인의 고통은 그런가 보다 하는 세태, 안쓰럽다는 말, 어찌지라는 말을 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린다. 내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먼 세상 이야기라며 애써 고개 돌리는 것이다. 사회단체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리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부를 해도 경비가 너무 많이 들 것이라는 짐작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기도 하고, 마음을 열어도 너무나 빈곤과 차별이 널리 퍼져 일부의 노력에는 끄덕하지 않는 것도 이유일 터이다. 더 부유해지고, 더 가난해지는 양분된 사람들의 발아래 폭악은 쟁여지고, 인류세의 병세는 깊어간다. 배고픈 이, 애정 고픈 이들의 눈물을 어찌 닦아줄 수 있을까. 큰 실천이건 작은 실천이건 움직여야만



세상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가진 자는 배 터져 죽고, 못 가진 자는 배고파 죽는다’는 속담은 가벼워 보이지만 무겁기 그지없는 보편이 되고… 누가 이런 사회를 원하는 것인가.

짐 선생은 어디쯤 걷고 있을까. 삼십 대에 세속적인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자 시작한 여행길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어찌면 등에 진 배낭보다 더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뚜벅뚜벅 걸으며 세상의 속살을 훑는 여행을 통해 그녀가 마음에 들이는 것은 배척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타자들이라 보이니. 초췌하더라도 더 깊어진 눈을 들여다보면 그녀의 짐 속에 들어있는 생각의 깊이를 알 수 있을까. 돌아온 짐 선생의 한층 성숙해진 모습 앞에서, 나도 검불 같은 생의 가면을 벗고 그녀 곁에 서고 싶다.

떡방이 한창이다. 잘 먹고, 많이 먹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풍조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최소한의 음식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의 아우성이 묻히는 것을 어찌 이해해야 할까. 짐 선생이 마음에 진 짐을 함께 풀어내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

글_송명화 수필가

‘남구형’ 문화도시를 만들다

부산남구문화재단

구본호 초대 대표이사

구본호 대표이사는 지난 8월 14일 열린 부산남구문화재단 창립총회에서 초대 대표이사로 임명되어 앞으로 2년간 재단을 이끈다. 그는 (주)티엘갤러리 관장,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관장,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동명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고, 예술문화 행정 전문가이자 교육자로서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꾸준히 활동해 왔다.

부산남구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 선임 축하합니다. 임명된 소감과 앞으로의 책임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라면 기쁨보다 앞으로의 걱정이 앞선다고 할까요.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게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를 책임지며, 미래 방향과 모양을 결정짓는 것이 초대 대표이사의 역할이니까요. 부산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남구문화재단과 부산의 문화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또는 지자체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부산 남구는 어떤 문화적 특징이 있나요.

남구는 이기대 해안, 오륙도, UN기념공원 등 탁월한 자연 및 역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성대, 부경대, 동명대, 예술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문화가 활발히 형성된 지역입니다. 동시에 문현동, 감만동 등 낙후된 원도심은 고령화가 심화되어 문화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는 빈

부격차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단의 특성은 해양, 평화, 청년, 역사 등 남구 고유 자원을 문화로 재생산이 가능한 기회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문화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문화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한 문화 행정, 문화시설 운영 등 문화서비스,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문화거버넌스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이란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공 서비스 제공이나 사회기반 시설 건설·운영 등을 위해 서로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협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입장에서 문화서비스를 보면, 민관협력은 재단 업무 중 가장 기반이 되는, 어쩌면 기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지역 기업, 문화예술인, 지역민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중간자이자 동시에 예술인·단체·공간 등 민관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협치 체제의 마련과 제도화, 지역 시민단체 간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공동체 구축 등이 문화향유와 문화복지 실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문화재

단이 있는 곳은 안정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 기대의 결과는 협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민관협력의 긍정적 효과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생각하는 '남구형 문화 복지'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나 중점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부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서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런 도시의 개념, 또는 개념도시는 거주민과 방문객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럼 '남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가요? 개념도시는 도시의 총체적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는 생활자의 공간, 즉 거주자의 삶과 연결됩니다. 거주자는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와 발전 가능성, 문화적 비전을 가집니다. 방문객(관광객)은 이곳에서 즐길 거리, 경제, 문화적 수준을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도시의 개념, 즉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문화 복지는 거주자와 방문객의 문화적 향유, 체험 등 다양한 문화생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구는 전통과 현대, 로컬과 글로벌 이미지와 문화가 서로 스며든 하나의 색채가 있습니다. 해안 자연 및 역사적 자원이라는 아직 잘 드러나지 않은 색채입니다. 이 이미지를 강조하여 '남구형' 문화도시를 구민과 함께 앞으로 만들어가며 소개하면 어떨까 합니다.

부산 전체 문화 생태계 속에서 부산남구문화재단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광역문화재단은 광역단위 사업 설계와 기초 문화재단 간의 사업 조정과 협력자 역할, 기초문화재단은 지역의 현황과 자원을 파악하여 특화된 문화 사업을 발굴·육성합니다. 부산남구문화재단은 부산의 16개 자치구 중 세 번째 신설된 재단입니다. 금정문화재단과 부산진문화재단



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 문화복지, 예술인 자립, 지역 콘텐츠 발굴 등의 문화 생태계에 힘을 보태 부산문화 활성화에 동력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이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방식으로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부산 예술인과 남구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단 활동과 관련해 함께해 주길 바라는 당부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덤 그랜트는 저서 『히든 포텐셜』에 “잠재력은 출발점이 아니라 얼마나 멀리까지 가느냐”라고 했습니다. 출발점보다는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할 것인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인과 남구 주민들은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더불어 성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구는 구민, 전문 예술인과 단체, 생활 예술인과 동아리뿐 아니라 기관, 단체, 모임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문화도시 남구로 나아가기 위한 소통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진행 정리_정혜주



제32회 부산문학상 대상 수상자 시인 **주순보**

- 1998년 월간『韓國詩』등단(4월호)
- 부산문인협회 부회장
- 부산시인협회 회원
- 부산문학상 대상
- 오륙도문학상 대상
- 부산시인협회 부산시인 우수상
- 현) 거제문화예술제 추진위원장(11년) 역임

‘제32회 부산문학상’ 대상 수상자인 주순보 시인은 시를 통해 삶을 기록하고 치유해 온 문학인이다. 1998년 월간 『韓國詩한국시』를 통해 등단한 이후, 부산문단에서 간사·이사·편집장을 역임하며 활동했고, 리포터 등 다양한 글쓰기를 이어오며 꾸준히 자신의 문학 세계를 확장하는 한편 부산문인협회 부회장, 부산남구문인협회 고문으로 지역 문학의 발전에 힘쓰기도 했다. 또한 고향 거제에서는 11년간 ‘거제문화예술제’를 주관하며 3대 가족시인 시비거리를 조성해, ‘거제시의 힐링 1번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봉사과 창작을 함께 실천해 온 그의 길은 문학의 뿌리였던 아버지의 삶과 닮아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예술의 맥

주순보 시인의 문학적 뿌리는 어린 시절부터 곁에 있었던 아버지를 포함하여 가족에게서 비롯되었다. 선친 故 주성국 시인은 일본 유학 후 고향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교가

를 작곡한 교육자이자 한시 시인이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형제들 역시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아 주명옥 문인화가, 주철민 사진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순보 시인 또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와 소설로 입상하며 재능을 드러냈고, 여고 재학 시절 백일장에서 장원을 수상하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인의 길을 걸섰했다. 이때부터 아버지의 한시 퇴고 작업을 함께하며 문학적 토대를 다졌고, 그 경험은 「가을걷이」와 같은 작품 속에 부정(父情)과 가족애로 이어졌다. 그리고 가족애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다.

위기 속 가족애로 빛어낸 시

아버지와 막내 오빠를 암으로 떠나보낸 뒤, 주순보 시인 역시 조직검사 결과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제 내 차례구나”라는 절망감이 엄습했다고 한다. 그러나 희망의 끈을

붙잡게 한 건 가족이었다. 더 이상 소중한 이를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병을 맡고, 의료진과 협의해 병의 심각성을 감춘 형제들은 그에게 “유방암 1기라 치료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위로를 건넸다. 그것이 선의의 거짓말이었음을 훗날 알게 되었지만 헌신 앞에서 더는 따질 수 없었다. 그 믿음과 지지 덕분에 『겨우살이가 말하다』가 탄생했다. 병상에서 느낀 고독과 오진의 울분, 어린 두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미 세상을 등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곁을 지켜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시 속에 고스란히 새겨졌다. 퇴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시집으로 묶였지만 오히려 병상에서의 날것 같은 감정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 경험은 ‘생명’을 다루는 태도를 한층 진솔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작품에는 가족의 흔적이 깊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위암으로 일찍 별세한 막내 오빠, 투병 시절 병실을 오가며 간병을 자처한 언니들. 이들은 시 세계의 원천이자 화자가 되었다. 병마와 싸우며 ‘시 쓰기는 고독을 은혜로 환원시키는 자아정체성’임을 실감했고, 고독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종교적 위안 같은 치유를 얻었다. 그는 지금도 시를 쓰며 ‘다이돌핀’ 같은 강력한 치유 효과를 느낀다고 말한다. 문학은 고통을 극복하고 절망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 삶의 버팀목이었다.

주순보 시인의 드라마틱한 투병기는 연극계에서 무대로 옮기자는 제안이 있을 만큼 극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선불리 결정하지 않고 잠시 미뤄두고 있다.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예술을 세상과 나누는 일이다.

그는 고향에서 ‘거제문화예술제’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며, 앞으로는 환우들에게 시낭송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 시인은 병상에서 직접 시의 힘을 체험했다. 창작 활

동뿐 아니라 시라는 언어 자체가 무겁고 외로운 시간을 견디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음을 온몸으로 겪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을 찾아가 시낭송 봉사를 통해 예술의 치유력을 나누고자 한다.

시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주순보 시인은 난해한 현대시의 흐름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면 독자와 멀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언제나 구체성과 추상의 균형을 맞추며 시를 풀어내려 한다. 이러한 태도는 현실사회를 다룬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거울을 보며 반추하다」나 마창대교 부자참사 사건을 다룬 시처럼, 그는 실존의 비극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되 시적 은유를 더해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사회의 어두운 이면 속에서도 희망의 언어를 찾으려는 사명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그의 시선은 지역 문단으로도 이어졌다. 오랫동안 부산 문단의 한 축을 지켜온 그는 부산문학의 특징을 ‘열린 문학’이라 정의한다. 항구 도시이자 피란수도의 기억을 품은 부산은 외부 문화를 수용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왔다. 그는 앞으로 부산문학이 디지털 세대의 젊은 작가뿐 아니라 이주민과 외국인의 목소리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순보 시인에게 문학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한 버팀목이자 가족을 향한 애정의 고백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회고이기도 하다. 그의 시 속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울려 퍼진다. 이번 수상은 그 긴 여정을 증명하는 훈장일 뿐, 주순보 시인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앞으로도 그의 시가 삶의 깊은 울림으로 남아,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길 기대해 본다.

글 인물사진_박준영

자연과 인간의 공존共存 속 핀 생명의 메아리 서양화가 **여홍부**

(중략)

우리를 닮은 꽃과 새와 구름이,

바람을 따라

영원히 전개되는

우리들의 자연과 봄의 축제,

변하지 않는 계절과 생명의 환희,

우리들의 봄날은

또다시 메아리 되어

낙원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냥 나의 사랑의 메아리(The Echo of Love)이다.

이제 이 영혼의 메아리는

나의 환상이고 존재이며

일상의 주제이다.

- 작가노트 중

고향의 기억 그리고 그림에 대한 방향성

경남 함양 마천면에 평범한 가정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여느 가정에 장남처럼 부모가 장래에 의사나 은행원과 같은 고정적 수입이 있는 직업을 원한 탓에, 학업에 관해 엄격했으며 그림에 대한 소질과 적성이 있었음에도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한다. 집을 오가는 마을에는 언제나 강과 숲, 논과 밭, 꽃과 새가 있었는데, 속상한 일이 있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이들을 보고 들으며 벗으로 삼고 마음을 다잡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 후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춘기 시기에 오는 방황기를 겪는데, 그 과정에서 꾸준히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러던 중 정문현 미술 선생님을 만나면서 미술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과 시작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미술 수업 중 코스모스를 주제로 한 그림에서, 타인과는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고 색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을 보고, 선생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며 지도를 해주셨다고 한다. 여 화백은 현재에 와서 되돌아보면 사물의 사실적 묘사가 주가 되는 구상이 아닌 비구상적 요소의 표현이 눈에 띄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생각하며, 그때 영향이 현재까지 본인의 작품관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피력한다.

그의 그림에 대한 열정과 고집은 이후에도 더 커졌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가정에서는 미술 분야의 입문에 대한 반대는 더 심해졌다. 한때는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로 석고상 실습을 위해 집에서 연습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부친이 그때마다 그것을 버리는 경우도 생기면서 여러 현실적 상황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다행히 동아대 학교 대입 시험에 합격 후 부모님이 이를 인정하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던 지난 시간이었다.

미술 작가와 교사로서의 삶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미술과 관련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로 하기 시작했는데, 타 학생들보다 늦게 입학한 탓에 철저히 계획을 세우며, 시간을 게을리 쓰지 않았다. 대학 시절, 여러 전공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았지만, 특히 故 김종식 선생과 故 정건모 선생의 서로 다른 지도 방식은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 중에서도 故 김종식 선생의 선묘(線描)는 여 화백의 작품세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작품의 주제 표현과 밑그림이 되는 드로잉 이미지에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점, 선, 면을 기초로 한 조형 예술 가운데 '선'의 요소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작품에 주로 활용해 온 그는, 이러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서양화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작품 제작에 필요한 주제 선정과 표현 방법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자연과 연계선에서 환상적 이미지를 주로 표출하고, 문학적 부분에서는 故 김환기 작가의 작품세계에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영혼의 울림을 담은 풍경의 개념을 동경하며 연구하기 시작한다. 故 백성도 선생, 故 이두옥 선생, 故 기수암 선생과 같이 다니며, 이들과 1, 2년 터울로 졸업 후 본격적으로 서양화가로서 활동을 이어갔다. 당시는 화실도 몇 없이 열악했고 그나마 부친이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기에 다른 이들보다 조금 나았으나, 전반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다.

메아리(울림), 259×193.9cm, Mixed media, 2002



히 이어졌고, 그의 작품세계는 점차 확장되어 갔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共存,

사랑의 메아리 The Echo of Love

여 화백의 작품세계는 ‘메아리’를 주제로,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며 자연과 인간의 형태가 결합한 공존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순환과 인간의 삶을 표현했다. 이에 대한 시작점으로 그의 유년 시절 고향에서 자주 보이는 지리산과 계곡에서 들려오는 소리, 메아리를 언급한다. 옛 기억 속 메아리는 가슴속에 스

1975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에 들어섬과 동시에 교직생활도 함께 이어갔다. 첫 근무지인 밀양의 밀성고등학교로 통근하며, 미술교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토성중학교를 거쳐 1977년 남여자중학교에 정식 발령을 받았고, 경남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동여자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 근무했다. 마지막으로는 동래고등학교에서 퇴임식을 가지며 긴 교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에게 ‘미술’이라는 의미는 작품제작과 연관되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형적인 요소와 정서 함양이 필요한 과목이기에 가장 보람 있는 직업이었다고 고백했다. 통상적으로 교직과 작가의 겸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미술에 대한 의지만으로 꾸준히 결과를 이뤄낸 그의 집요함과 열정은 주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학교의 미술실에서 그의 현재 작품 시초가 만들어지는데, 수업 이후에는 미술실을 작업실로 활용하며 작품을 제작한다. 1992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전근 학교마다 제작된 작품들은 개인전으로 이어졌다. 정년 퇴임을 앞두던 해에는 10회 기념전을 하며,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작가로서의 활동은 꾸준

며들었고, 본인의 영혼 어딘가에 살아 숨 쉬고 있다. 회상 속 파생된 기억의 조각들은 삶의 울림으로 다가와 메아리는 삶의 일부가 됐다. 주 소재는 자연물, 인간, 새 등으로 모든 생명의 생성에서 수반되는 소리와 리듬감 그리고 운동감이 느껴지는 표현을 조형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새를 동경하며, 이에 대한 이유로 현대사회 속 각박해진 인간관계와 사회적 문제를 거론했다. 초창기 작품인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주로 사실적 표현 방식에 기인한 구상 작품을 구현하였는데, 이후에는 사고의 변화와 깨달음으로 색감의 절제와 형태의 단순화로 이어졌다. 1987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논문에서 초현실주의 ‘환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해 작품 주제와 표현의 다양성 측면에서 서양의 초현실주의 작가들 호안 미로Joan Miró,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표현 기법에서 자주 보이는 자동기술법Automatism¹⁾을 활용하고 정립했다. 1992년 첫 개인전에서 선보인 ‘메아리’ 시리즈는 산에서 들려오는 산 메아리로, 그 후로는 흐르는 강 메아리로 연이어 발표했다. 당시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소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시각화하여 작품에 적용했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작품은 해를 거듭할수록 리듬감 있는 선 위주의 절제된 표현과 모노톤 색감으로 생략과 운동감을 적용하며, 소리의 이미지에서부터 자연이 인간과 닮아가는 모습을 꽃의 형태로 또는 새의 일부 형태 등을 '곡선'으로 표현하여 인체 외형을 자연과 일체화하기 시작했다. 기법적 측면에서도 화면 속 파문 波紋의 마띠에르를 통하여 일종의 바람과 흐름 또는 '리듬'의 의미를 추가하여 입체적 효과를 부각시켰다. 작품 내에서 리듬의 중요성은 이를 통하여 하나의 어떤 소리를 유도하기도 하며, 소리를 느끼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미지에서 드러나는 조형적 특수성과 중성적 표현 등은 자연과 인간의 '시간성'에 기인한 일대기적 의미를 투영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된 세상을 표현한 제 작품은, 현실은 아니지만 관객들이 현실의 공간을 가장 아름답고 원초적인 낙원처럼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공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메아리(파도), 90.9×60.6cm, Oil on canvas, 1991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 미술의 역할과 제언

한국 사회는 대내외로 시대적 변화를 겪고 있다. 몇 년 전 코로나 시기 역시 그러한 변화의 한 축이었다. 여 화백 개인도 당시를 회상하며 힘듦을 전했다. 건강이 크게 악화해 최근 3~4년간 작품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고, 이는 작품의 흐름에 영향을 주며 단절됨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최근 건강이 다시 회복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드로잉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을 차분히 이어가고 있다. 늘 새로운 시도와 작업에 대해 고민을 하는 그는,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과 경향에 대해 매체의 확장과 소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판매 목적에 치우치고 시각적 매력만을 추구하는 경향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작품의 조형성과 개념 등 순수미술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작품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술에 대한 무한한 열정을 지닌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한다.

글 인물사진_백근영

1 무의식의 창조적 힘을 예술로 표현하기 위해 1924년 이래로 초현실주의 화가들과 시인, 소설가들이 사용한 기법이다. 무의식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기술하거나 떠오른 이미지를 그대로 그려낸다.



백암산 겨울메아리, 40.9×31.8cm, Oil on canvas, 1971

No. 45

나에게 시를 쓰게 하네

황인국

그저 웃는 너를 보기도
문장 하카가 어려운데
눈물로도 다 못 적는 무언가

한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이 나의 언어였는데
너는 나에게 시를 쓰게 하네

마음이 머문 거리처럼
너의 숨결이 남아 있스면
나는 그 흔적을 따라
언어 하카씩 주워 적는다

그저 "너" 라는 이유 하나로
세상 모든 문장이
나를 흔든다

작가노트 | 행복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글_황인국 (사)부산시인협회 이사장

RE: VIEW

- 음악 제1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오프닝
러시아 낭만으로 문을 열다 _ 박주현
- 음악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57회 정기연주회
부산의, 부산에 의한, 부산을 위한 출발 _ 류태형
- 음악 2025 나눴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Contra Flutes-숨결의 최저음, 경계를 깨다! _ 김윤선
- 미술 2025 부산, 새로운 예술로 연결되다 : 신진작가 육성 프로젝트
넥스트 투게더-제2회 신진작가 아트쇼_부산, 커넥티드 _ 백근영

제1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오프닝 러시아 낭만으로 문을 열다

글_박주현 작곡가

2025년 9월 2일(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축제의 첫 밤은 차분한 정적과 얇은 웅성거림이 교차하는 공기로 시작됐다.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BMIMF Festival Orchestra와 지휘자 구스타보 리베로 베버Gustavo Rivero Weber,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야코블레프Alexander Yakovlev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객석의 숨이 고르게 가라앉았다. 러시아 낭만의 정수 두 편성, 라흐마니노프S. Rachmaninoff와 차이콥스키P. I. Tchaikovsky로 축제의 궤도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오프닝으로 택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c단조, Op.18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은 축제의 환영사이자 선언문처럼 들렸다. 느린 맥박 위로 피아노가 긴장감 있게 시작되었는데, 야코블레프는 과장 대신 밀도의 선택을 보여주었다. 1악장 Moderato에서는 주제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현의 아름다운 선율과 피아노의 응답을 절제된 페달링으로 엮었다. 과한 악센트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오케스트라와의 다이내믹 접점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2악장 Adagio sostenuto는 중음역의 따뜻한 질감을 중심에 두고 선율을 노래했는데, 과잉 없이 서정에 도달하는 길을 보여주었다. 3악장 Allegro scherzando에서는 추진력이 한층 앞에 섰다. 피아노의 리드미컬한 분산화음이 금관의 응답과 맞물리며, 피날레로서의 긴장과 환희가 명확히 상승했다. 협연자와 지휘자의 관계는 ‘앞에서 끌기’가 아니라 서로의 호흡을 맞춰 미

세한 타이밍을 교환하는 파트너십에 가까웠다.

인터미션 이후의 선택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6번 b단조, Op.74 <비창>Symphony No.6 in B minor, Op.74 <Pathétique>」. 베버는 감정의 격랑을 정면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네 악장의 성격 대비를 구조적으로 드러냈다. 1악장 Adagio—Allegro non troppo의 서주에서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다 템포 변화가 이루어지며 짧은 패시지의 주제가 시작되었다. 클라이맥스의 포르티시모보다 그에 앞서 있는 ‘그림자 구간’의 미세한 음형 변화가 또렷하게 들리도록 한 배치가 인상 깊었다. 2악장 Allegro con grazia에서 흔들리는 왈츠의 선이 단지 우아함에 머물지 않고, 불안과 매혹이 공존하는 차이콥스키의 정서를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 3악장 Allegro molto vivace는 행진의 쾌감이 객석을 크게 뒤흔들었다. 빠른 음형을 섬세하게 정리함과 동시에 코다 직전의 에너지가 과열되지 않도록 한 마지막





제동이 4악장의 침잠으로 자연스레 길을 터주었다. 4악장 Adagio lamentoso는 서늘한 호흡으로 시작해 산문처럼 끝났다. 잔향이 홀을 감싸는 동안, 음악은 설명을 멈추고 시간을 가라앉히는 쪽을 택했다.

이번 오프닝 콘서트에서는 피아니스트 야코블레프의 단단한 터치를 돋보이게 했다. <비창>에서는 악기들의 음색 대비가 빛났고, 2악장에서 악기 간 주고받은 짧은 문답이 왈츠의 흔들림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3악장의 코다에서는 템포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아 4악장의 침잠과 명확한 대비를 얻었다. 지휘자는 큰 몸짓을 삼가고, 미세한 커브와 시선으로 섬세한 조절을 이어갔다.

관객의 반응은 곡선처럼 움직였다. 협주곡 2악장에서는 숨 고르는 정적이, 3악장 말미에서는 본능적인 환호가 터졌다. <비창> 3악장의 박수는 바다 물결처럼 빠르게 번졌지만, 4악장에서 박수보다 앞선 침묵은 한층 두꺼웠다.

오프닝에 이 두 작품을 나란히 배치한 기획은 축제의 좌

표를 또렷하게 제시한다. 대중적 친화력을 가진 레퍼토리로 문턱을 낮추되, 교향적 서사의 깊이를 끝까지 확보하는 방식.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의 볼륨감 있는 울림은 잔향을 충분히 품었고, 첫 밤의 서사가 공간의 기억으로 확장되었다. 무엇보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조직력과 베버의 절제된 지휘, 야코블레프의 밀도 높은 터치가 ‘넓게 열고 깊게 닫는’ 오프닝의 이상적인 형식을 구현해 냈다. 이 밤을 출발점으로, 음악제는 “친숙함과 깊이”라는 두 축을 병행하며 다음 공연들로 이어질 것이다.

항구도시 부산의 개방성과 축제가 만나는 지점도 선명했다. 친숙한 레퍼토리에 로컬 오케스트라의 응집력으로 응답한 선택, 세대가 다른 청중이 같은 결의 정적과 환호를 공유한 장면이 오프닝의 표정이 되었다.

밤은 환호로 한 번 부풀고, 정적으로 다시 가라앉았다. 넓게 열고, 깊게 닫은 첫 밤. 다음 무대들이 이 여운을 이어 부산의 가을밤마다 다른 결을 남기길 기대한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57회 정기연주회

부산의, 부산에 의한, 부산을 위한 출발

글_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부산’과 ‘오르간’이 교향곡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 32년 역사를 가진 민간교향악단 부산심포니의 57번째 정기연주회가 지난 9월 2일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올해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홀인 부산콘서트홀이 개관한 후,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첫 정기연주회였다. 무대 위는 갖가지 악기들, 특히 다양한 타악기들로 가득했다. 부산 클래식의 아이콘인 예술감독 오충근이 뜨거운 환호 속에 등장했다. 첫 곡은 하순봉 교향곡 1번 「부산釜山」(2025). 부산콘서트홀 개관을 기념해 부산심포니가 위촉·헌정한 작품이다. 부산 출신 작곡가 하순봉은 두 개의 악장이 1, 2부씩 나뉘어 모두 네 개의 주제로 부산이라는 도시의 어제와 오늘을 형상화했다.

1악장은 전설Saga, 그리고 바다Meer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다. 바그너 「라인의 황금」 시작 부분같이 부유하는 관현악은 마치 물속에 잠긴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타악기가 국악기 같은 효과를 냈다. 알 수 없는 미묘함 속에 부서지는 타악과 도도한 현악이 대조를 이뤘다. 점차 깊이 내려가는 곡의 방향성이 보였다. 그러다 면모를 일신한 듯 갑자기 관과 현이 찬란해지며 뚜렷해졌다. 타악의 다이내믹이 공간감을 자아내며 부산콘서트홀의 좋은 울림을 여실히 전달했다. 전설 속의 흥망성쇠를 표현한 부분이었을까.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모색하는 듯한 화성의 어우러짐이 이어졌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관현악의 총주가 울렸다. 상승감에 다이내믹한 큰북의 연타 이후 행진곡

처럼 대오를 잘 갖추고 말러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화음도 귀에 들어왔다. 총주에서 현과 관이 과잉을 이루며 금관의 포효 이후 무너져 내리듯 장관이 연출됐다. 유유히고 도도한 바다의 모습일까, 현이 슬픔을 달래는 듯했다. 거대해지는 총주에서 금관이 빠근하게 두드러지며 미스터리가 부각됐다. 육박해 오는 관과 현 속에 튜블러 벨이 울리고 영화음악의 분위기도 풍기는 가운데 현악 피치카토로 끝을 맺었다.

2악장 만가Nanie·축제Fest의 도입부에서는 창을 하는 듯 현악이 울부짖었고, 심벌즈가 방점을 찍었다. 국악 장단이 감지되며 예쁜 코플랜드 음악 같은 분위기와 애상적이고 처연한 선율이 나왔다. 어둑어둑한 총주는 걸음걸이같이 울리며 표정이 부드럽고 온화해졌다. 휘모리장단이 나오고 다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금관이 어두운 빛을 냈다. 하프와 플루트가 서정적인 연주를 펼쳤다. 축제적이고 국악풍의 질주가 신명 나는 마당놀이를 연상시켰다. 국악과 양악의 조화가 완전히 깔끔하지 못한 부분도 눈에 띄었다. 버르토크의 음악과 국악이 버무려진 느낌도 났다. 마림바 등 타악기의 연주는 미니멀리스틱한 효과도 나타냈다. 후기 낭만 음악 같은 무겁고 장중한 화음에 코플랜드 음악에서 보이는 여유를 띠며 묵직하게 질주했다.

갈채 속에서 지휘자 오충근은 객석 중간의 작곡가 하순봉을 지목해 일으켜 세웠다. 부산 작곡가가 작곡한 교향곡 「부산」을 부산 출신 지휘자와 부산의 민간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했다. 부산 최초 클래식 전용 홀 부산콘서트홀 안의 쏟아지는 갈채 속에서 부산의 클래식 음악의 정체성이 비로소 오롯이 출발선상에 섰음을 느꼈다.

휴식 시간 뒤 2부에는 생상스 교향곡 3번 「오르간」이 연주됐다. 오충근은 보면대 없이 암보로 지휘했다. 중앙상단의 오르간석에 신동일이 앉아 있었다. 1악장 시작은 정갈하게 울렸다. 악기들의 여운이 잘 전달되는 부산콘서트홀의 음장감이 새삼 다가왔다. 총주로 접어들면서 관현악이 묵직해졌다. 다소 예측적인 연주였다. 바람이 불 때 풀이 눕듯 저역현에서 고역현으로 이동하는 일사불란한 음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오르간의 찬란함을 예비하듯 금관악기들의 빛나는 활약이 두드러졌다. 악구를 반복할 때마다 이전보다 확신이 더 없어진 연주였다. 저음현의 피치카토도 잘 들렸다.

1악장 2부. 드디어 오르간의 저음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바닥을 울리기 시작했다. 거칠고 음의 과잉이기 십상인 통상적인 오르간 소리와는 달리, 끝이 둥글고 부드러운 음색이었다. 마치 이 세계가 듣는 이를 포근하게 껴안아 주는 듯한 위안의 오르간 소리였다. 오케스트라와 오르간 음이 이물감 없이 잘 어우러졌다.

2악장 1부 도입에서 현악군은 격렬해지면서도 차가운 치밀함을 품고 있었다. 묵직한 관현악의 양감과 높은 밀도감은 오충근 지휘의 트레이드마크였다. 피아노가 미끄러지듯

나오며 익살스러운 여유가 음악에 더해졌다. 곡은 더욱 풍성한 후반부로 치닫고 있었다.

마지막 2악장 2부에서는 오르간 음이 빗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했다. 신동일이 연주하는 오르간석 위에서부터 하늘의 소리 같은 찬란함이 쏟아졌다. 오르간과 오케스트라가 축제적으로 어우러졌다. 플루트의 지저귀이 오묘함을 더해주었고, 트롬본이 포효하며 천상의 음악, 그리고 지상의 음악이 만나는 순간을 중재했다. 오르간과 더불어 홀의 음향이 좋은 악기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개관연주회부터 인상적이었던 부산콘서트홀의 음향이 점점 더 자리 잡아가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포디움에서 객석을 향해 돌아선 지휘자 오충근은 교향곡 「부산」의 작곡가 하순봉과 부산콘서트홀을 운영하는 클래식부산의 박민정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오충근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예고편처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다음 공연 예고편을 앙코르로 연주하겠다”고 소개했다. 그 곡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도입부였다. 오르간 음이 홍수를 이루듯 객석으로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 일품이었다. 공연이 끝나는 아쉬움을 일소하고 다음 공연에도 기대를 걸게 되는 그 순간의 존재감은 공연장을 나오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잘 보이는 별빛처럼 소리를 수놓은 듯한 부산의 밤은 깊어갔다.

2025 나눔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Contra Flutes-숨결의 최저음, 경계를 깨다!

글_김윤선 음악평론가

지난 9월 5일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에서 젊은 플루티스트의 이색적인 무대를 만났다. 나눔플루트 앙상블 정기 연주회 <Contra Flutes-숨결의 최저음, 경계를 깨다!>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콘서트 플루트가 아닌, 특수 악기인 콘트라베이스 플루트가 메인 무대를 맡은 연주였다.

[나눔플루트 앙상블]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 플루티스트들로 구성된 단체로, 201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 주최한 나눔 콘서트에서 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음악회를 열어 창단하였다. 이후 한국·중국·일본·대만·싱가포르 등 5개국의 플루트 주자들이 모여 음악적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는 아시아 플루트연맹(AFF, Asia Flute Federation)의 콩그레스에 참여하는 등 해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음악의 트렌드를 따르기 위해 현대 기법을 연구하고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다루며 현대 플루트 음악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플루트 앙상블의 예술적 가치와 그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유망 신인 연주자를 발굴하고,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곡가들과 협업해 신선한 음악적 에너지를 더하며 다채로운 구성과 해석으로 플루트 앙상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콘서트 플루트와 피콜로, 알토 플루트, 베이스와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등 오롯이 플루트로만 구성된 편성으로 준비되었다. 전반부에서는 낮은 음역대의 알토 플루트, 베이스 플루트 솔로에 이어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

된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5중주로 무대를 이끌었다.

미국의 플루티스트 겸 작곡가 리사 보스트 샌드버그(Lisa Bost-Sandberg(b.1981)의 「비가 오면 / 강이 멈춘다」(When it rains / the river stands still)로 첫 무대를 시작했다. 플루티스트 김윤희가 알토 플루트에서 울리는 플루트의 음색과 사람의 목소리를 함께 내는 특수 기법으로 연주하였다. 이어진 윤이상(1917~1995)의 「베이스 플루트를 위한 Etüde IV Etüde IV Andante für Bassflöte(1974)」는 황미리의 연주로 선보였다. 베이스 플루트의 어두운 음색을 통해 동양적 사유와 현대적 기법을 보여주었으며, 윤이상 음악의 중심인 도교사상과 윤희사상의 철학적 사고가 심미적으로 드러났다. 연주는 플루트의 고유한 음색을 넘어 작곡가가 의도한 대금의 질감을 깊은 호흡 속에 여유롭게 구현하며, 여백의미를 돋보이게 했고 많은 박수를 받았다.

네덜란드 작곡가 윌 오퍼먼스(Wil Offermans(b.1957)의 「Forbidden Valley Forbidden Valley, a flute quintet for low flutes 5 Contrabass Flutes」는 깊고 건조한 계곡을 탐험하듯 숨겨진 물과 수줍은 초목이 맞물려 흐르는 리듬과 혀의 피치카토, 바람의 음색을 사용하여, 제목에서 오는 불확실하고 미지의 영역을 떠도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콘트라베이스 플루트로 뒷받침해 주었다.

백은숙의 「5대의 콘트라 플루트를 위한 별의 파편들」은 이번 정기연주회를 위한 위촉곡으로 불규칙한 리듬과 박자를 동반해 현대주법을 극대화하며, 별의 충돌과 그 파편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5중주

이 부유하고 여행하는 듯한 형상을 대립과 앙상블로 그려 내어 새로운 음향을 선보였다.

후반부 첫 곡인 가레스 매클리어넨 Gareth McLearnon (b.1980)의 「플루트 앙상블을 위한 Cosmic Dawn」Cosmic Dawn for Flute Ensemble」은 수십억 년에 걸친 어둠 속에서 첫 별들이 빛나기 시작한다는 아이디어를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저음악기가 앰비언트 사운드를 맡고 그 위에 미묘한 리듬들이 별처럼 차츰 고조되어 가는 멜로디가 없으며 고요함에서 광활한 우주로 이어지는 매력을 드러냈다.

부산의 젊은 작곡가 김중완의 「These(정), Antithese(반), Synthese(합)」 역시 나눔플루트 앙상블 2020년 위촉곡으로, 독일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 논리를 음악으로 펼쳐보았다. 16분음표로 진행되는 미니멀음형인 테제와 두터운 화성의 안티테제, 이 두 논제와 합을 이루는 16분음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화성이 폭넓게 흘러 피콜로부터 가장 낮은 콘트라베이스 플루트까지 진테제로 향하여 하나의 큰 하모니의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곡인 피셔 툴의 Fisher Tull(1934~ 1994) 「Cyclorama 1

for flute ensemble」은 앞서 연주한 곡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처음 연주되었으며, 한 대의 베이스 플루트를 중심으로 2대의 피콜로와 6대의 플루트, 2대의 플루트가 대칭을 이룬 대열로 진행됐다. 기존의 플루트 연주 방식에서 벗어나 색다른 배열에서 오는 공간의 울림과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구조를 통해 음향학적 움직임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실험적인 곡이었다. 또한 유사한 악기들 사이의 음색이 청중들에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신비로운 사운드에 집중하는 경험을 선사했다.

현대음악은 누구에게나 낯선 얼굴을 하고 있다. 연주자에게도 그러하다. 하지만 우리는 새롭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의 음악을 연주해야 한다. 나눔플루트 앙상블은 매년 참신한 레퍼토리로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부산 초연을 넘어 국내 초연의 초현대 음악을 다루며, 기존 클래식 무대에서 보기 힘들었던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생소해지는 청중을 향해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나누는 나눔플루트 앙상블의 용기 있는 도전에 큰 박수를 보낸다.

2025 부산, 새로운 예술로 연결되다 : 신진작가 육성 프로젝트

넥스트 투게더-제2회 신진작가 아트쇼_부산, 커넥티드

글_백근영 한국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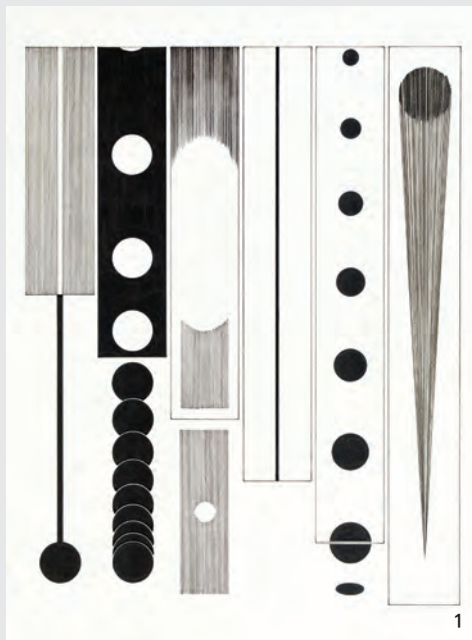
넥스트 투게더Next together, 제2회 신진작가 아트쇼 ‘부산, 커넥티드 BUSAN, CONNECTED’가 높은 경쟁률 속에서 최종 10팀(20명)이 선정되어, 9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부산근현대역사관 금고미술관에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역성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인 1팀’ 중 1명 이상을 부산 출생·정주·출향 작가로 제한했으며, 전시기간에는 ‘대한민국 미술축제’ 기획프로그램 ‘아트시그널, 부산’과 연계해 갤러리·아틀리에 투어, 아트 토크 등을 진행, 관객들에게 현대미술을 친숙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

① 변방의 삐 소리-시·청각 융화의 신新방법론

② 우리두리-생동적 세계에 대한 사적 시선

입구의 철제문과 통로를 지나면 숫자로 구분된 보관 구역마다 주제에 맞게 작품이 전시되어 공간의 독특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첫 번째 그룹 [변방의 삐 소리]는 서로 다른 감각에 주목한 두 작가가 시·청각이 융합되는 것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작품에 적용한다. 변현우의 단채널 비디오 영상은 현대인의 일상 속 순간의 형상과 자연·기하학적 도형을 관찰자적 시점에서 유쾌하게 엮어내기도 하며, 방상환은 드로잉과 원형 입체물, 영상 작품이 다른 듯 닮은 듯하게 기하학적 형태 이미지로 만화 형식의 칸에서 상황적 서사를 상상하게 한다. 특히, 전자음이 입혀진 의성어를 변환함으로써, 만화적 형식을 서사적 이야기 구조로 이끈다. 두 작가의 작품 표현 방식은 시·청각의 융화를 방법론적 시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리두리] 그룹은 검은 벽과 강렬한 색감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1 방상환 원고, 23×31cm, 종이에 펜, 2025

2 김채리_거미여인의 눈물 Incy Wincy Spider, 131×131cm, 천에 터프팅, 2023

두 작가는 겹쳐진 세계 속 사건과 존재의 관계를 탐구하며, 제한된 공간 속 이미지의 충돌로 집중과 이질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각자의 시선으로 직시한 것을 표현했다. 한정된 공간 속 두 세계관의 이미지 충돌은 관객에게 집중과 이질적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김채리는 드로잉을 기반한 주제와 매체 확장의 하나로써, 직조, 회화 및 디지털 사진 콜라주를 혼합한 이미지들을 버내쿨러 디자인¹⁾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 기억을 반복 노출시켜, 관객에게 사회 내 인식의 변화를 주지시켰다. 이밖에 박우수리는 은유^{隱喩}와 신화적 상징으로 동물, 심장, 소녀 등의 형상을 드로잉과 회화에 등장시키고, 원색적 색감과 과감한 붓터치로 작가의 일상적 경험과 상상력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는 관객에게 또 다른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사유의 확장을 의도한 듯한 맥락을 제공한다.



3 김용원_The reflection of landscape lost
-Chronicles for little things (Jangdo's edition)
4 김보경_바다 도시(Sea City), 454.6×145.5cm,
Charcoal, Pastel, Acrylic on canvas, 2025

③ 파편과 실—상실의 흔적 속 파편적 기억

④ 루미네아—소멸의 흔적 그리고 사유적 빛

다음 전시구역으로 시선을 옮기면, [파편과 실] 그룹은 사라지는 것과 남겨진 것을 감각하는 김보경과 희박의 작업으로, 서로의 접점이자 함께 직조하는 느슨하고도 끈질긴 연결의 방식을 표현하고 있다. 두 사람의 작품은 전혀 다른 매체와 방법론을 취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붙잡으려는 몸짓’, ‘남겨진 것을 이어가는 태도’가 공통으로 자리한다. 결과적으로 상실의 감각을 조용한 미련과 애도를 통해 서로 다른 결로 펼쳐 보인다. 김보경은 일상의 파편을 수집·재조합한 회화를 통해 부산 풍경을 흑백의 장면으로 재편집해, 익숙하면서도 낯선 순간과 감정의 형상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희박은 영상과 설치 작업으로 기억과 사물을 융합하며, 꿰매고 이어 붙이는 몸짓 속에서 믿음과 시간의 형상을 직조한다. 작품은 관객에게 감각과 기억의 경계에서 다음을 상상하게 한다.

[루미네아] 그룹은 현실 속 버려진 조개껍질과 녹아내리는 바다의 얼음, 그리고 그것을 비추는 빛의 조용한 시선을 영상과 설치작품을 통해 익숙한 시공간의 틀을 흔들고 존재를 넘어선 감각적 사유의 공간인 가상 공간 ‘루미네아’를 보여준다. 소멸의 흔적과 재생의 감각을 조형적으로 재구현하여, 이전에 사라지는 것들 속 여전히 살아 숨



상환_달아있는 것들, Installation within 3m, Black clay, 2024

쉬는 감각과 존재의 흔적을 표현한다. 김용원 작가는 전시 작품에서 버려진 자개, 파편, 석화 등의 잔재들을 통해 소멸된 바다 생태의 조각들을 다시 구성하여, 시간을 품은 장소성과 침묵적 의미를 부여한 조각들을 설치했다. 유영 작가는 사라져가는 물질인 ‘얼음’을 통하여 다대포와 을숙도의 풍경을 교차 편집하여 소멸과 재생,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생태학적 존재의 감각을 관객에게 환기하고 있다.

⑤ HH—형상 생성과 층위의 매체 탐구

⑥ 아키비스트—존재 사유의 교차적 기록

[HH] 그룹은 형상에 대한 각자의 이해를 서로 다른 매체로 시각화한다. 전시는 ‘몸’을 단지 물리적 형상이 아닌, 타자와 관계 맺는 유동적 매개체로 바라본다. 서로 다른 감각과 형식이 만날 때 발생하는 진동을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것은 완전한 이해나 통합을 전제하지 않고, 오히려 ‘감각’들이 나란히 존재하며 충돌, 다시 접속하는 순간을 주목한다. 박현성은 전시에서 몸, 특히 피부부를 중심으로 경계와 감응의 조건을 탐구하며, 부드러운 천, 날카로운 금속, 의료 오브제 등 이질적인 재료들로 서로를 지탱하거나 위협하며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황현덕은 사물과 흔적의 반복·오류를 통해 감각의 층위를 쌓고, 덧칠과 지움으로 고정되지 않는 형상을 생성한다.

[아키비스트] 그룹은 ‘기록하는 행위’를 키워드로 두 작가의 상대적 작업 방식이 어떻게 교차하고 확장되는지 시각적으로 구성하고 이것에 초점을 둔다. 감각적 ‘쉽’의 순간을 회화로 정제해 존재 사유와 안정감을 기록하는 조하은, 재료의 물성으로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존재성을 조형화하는 상환은 서로 다른 매체로 기록이라는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 이들에게 기록은 단순한 흔적의 축적이 아닌,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각하는 방식이자 외부와 연결되는 하나의 언어인 것이다. 이러한 작업적 확장과 매체적 다양성은 작가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관객은 두 작가의 교류 시너지와 지향점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⑦ 해상단—이미지 해체와 결합: 재현과 추상의 불완전성

⑧ 평행-교차—감정과 기억의 병치 속 구조적 파생

[해상단] 그룹은 이미지의 해체와 재구성을 탐구하며, 디지털 오류 복원 알고리즘인 리드-솔로몬 코드를 모티프로 삼는다. 그리고 사회가 끊임없이 손실을 메우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드러나는 오류와 균열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이미지의 연속성과 완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빛·오류·코드와 같은 파편을 드러내며 이미지의 불확실성과 단절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각 질서를 경험하게 한다.

[평행-교차] 그룹은 이전 전시의 감정 교차 탐구를 확장해, 이번에는 교차가 실제로 발생하고 구조화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실험한다. 이미지가 한 공간에서 맞물리며 감정과 기억이 단순한 병치가 아닌 충돌과 공존을 거쳐 새로운 영감과 교류로 이어지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내러티브보다 감정의 흐름과 흔들림, 그리고 각 작업세계의 교류와 파생에 집중했다.

해상단解像團 전시 전경



윤과 백, New Form, Various size, 젤라틴, 흑연, 숯가루, 색소, 흙, 유리가루, 금속 프레임



⑨ 윤과 백—현실과 디지털 이미지 관계: 실재의 표상

⑩ 유유—소설과 현실 사이: 사랑, 상처, 도약의 서사

전시의 마지막 공간인 [윤과 백] 그룹은 사진 매체의 위상과 프린트 미디어의 물질적 변화를 탐구한다. 전시는 직접 촬영하거나 공적으로 배포된 시각 데이터를 가공해 고유한 실재를 표상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며, 광학 이미지를 실재화하는 등 공동 작업을 통해 사진의 이면에 대한 상상을 관객과 공유한다.

[유유] 그룹은 단편소설 『You are the most interesting book I've ever read』을 현실 시공간으로 끌어와서 카프카 『변신』의 일부를 차용하고, 연애·사랑의 일련의 과정을 동시대 청년들과 나눈다. 이들은 '아프지 않는 법'이 아니라 '아파도 회복하는 법'을 이야기하며, 사랑·선택·경험·도약으로 이어지는 서사를 전시로 풀어냈다.

이번 전시의 성과와 지속을 통해 앞으로 부산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작가 발굴과 이들의 새로운 기획·전시를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전의 확대가 기대된다.

1 지역이나 사용자 따위의 문화·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는 디자인을 이르는 말.

건축과 서예 XVI

시간을 품은 바닷가의 경계 없는 사원 기장 묘관음사와 운여 김광업



기장 묘관음사 ©구주환 사진

열린 도랑, 바다와 함께한 묘관음사

부산 기장군 임랑리 바닷가에 자리한 묘관음사는 처음부터 이색적인 풍경을 드러낸다. 일주문도 담장도 없이 열려 있는 구조는 세속의 경계와 불교의 세계를 구분하기보다는 자연스레 이어주는 장치처럼 보인다. 사찰 마당에 서면 파도 소리가 곧 법문이 되고, 바다는 곧 수행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길으로는 소박하고 담백한 모습이지만, 경내로 들어서면 대웅전, 관음전, 조사전, 삼성각, 종각이 있으며, 당우는 길상선원, 보화원, 심원당, 산호당, 마노당 등이 있다. 부도 구역인 백화도랑에는 황금색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모신 진신 사리탑과 운봉, 향곡 두 분 선사의 부도탑이 모셔져 있다. 열린 공간 속의 배치와 구성은 단아하면서도 격조 있는 선원도랑의 면모를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임제종의 법맥을 잇는 이곳의 역사는 창건과 중창을 이끌어 온 고승들의 수행 전통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법맥의 전승, 운봉에서 향곡으로

묘관음사는 경허스님과 혜월스님의 법맥을 이은 운봉선사가 1943년에 창건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긴장감이 감도는 와중에도 불교 수행 전통을 이어가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46년 운봉선사가 입적한 이후 수법제자인 향곡선사가 중창하여 고준한 선풍을 이어오면서 30여 년간 수많은 제자를 배출하였으며, 1967년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을 지낸 진제선사에게 법을 전했다. 경허-혜월-운봉-향곡-진제 선사로 그 맥을 이어 내려오고 있는 묘관음사에서는 청담, 성철, 서옹, 월산 선사 등 당대의 선지식 스님들도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자세로 철저히 수행하며, 한국 현대 선종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사찰로 자리 잡았다.

묘관음사의 현판들_산호당珊瑚堂과 마노당瑪瑙堂

묘관음사 선원수행의 정신을 압축하는 현판은 단연 <동국제일선원(東國第一禪院)>, <길상선원(吉祥禪院)>으로 운여(雲如) 김광업(金廣業, 1906-1976)의 글씨이다. 길상선원은 1949년 성철스님이 생식을 하며 장좌불와(長坐不臥)로 동안거를 지낸 곳이기도 하다. 묘관음사 대웅전을 정면에 두고 좌측에는 마노당, 우측에는 산호당 전각이 서로 마주 보며 위치하고 있다. 불교에서 『무량수경(無量壽經)』에서 일컫는 칠보(七寶) 중에 해당하는 산호와 마노의 명칭을 전각 이름에 쓰는 것도 독특하다. 길상선원이기도 했던 <마노당(瑪瑙堂)> 건물의 현판은 운여 김광업이, 마노당의 주련은 석정스님이, 그리고 <산호당(珊瑚堂)>의 현판과 주련은 청남 오제봉이 담당했다. 묘관음사 천왕문을 지나면서 처음 만나는 <묘관음사(妙觀音寺)> 현판, 그리고 <범종각> 현판과 주련 또한 청남 오제봉 글씨이다. 청남 선생의 경우 사찰과의 인연은 익히 잘 알고 있으나, 기독교 신자이자 안과의사였던 운여 김광업의 글씨를 사찰에서 만나게 되자 반갑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다.



길상선원_운여 김광업



동국제일선원_운여 김광업



마노당_운여 김광업



모관음사_청남 오제봉



범종각_청남 오제봉



산호당_청남 오제봉

의술보다 붓을 가까이 한 삶, 운여 김광업

1906년 평양에서 태어난 운여 김광업은 일찍부터 학문과 예술을 동시에 품은 인물이었다.

그는 1927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45년 해방 직전까지 고향인 평양에서 안과의사로서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계속 붓과 먹은 그의 손을 떠난 적이 없었으며, 1935년 기성서화구락부(箕城書畫俱樂部)의 창립회원으로 활동하며 전쟁과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종지와 붓은 늘 가까이 두었다.

그는 대한민국 현대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중업(1922-1988)의 형으로, 6·25 전쟁 당시 1·4후퇴 때 평양에 부인과 어린 아들 넷을 남겨두고 자녀 넷만을 데리고 남하하여 대구 동산병원에서 안과의사로 재직하다가 1954년 부산 광복동에 대명안과를 개원하였다. 이듬해인 1955년 부산 최초의 서예학원인 동명서화원(東明書畫院)을 개설하면서, 청남 오제봉(淸南 吳濟峯), 삼락자(三樂子) 석정(石鼎)(1928-2014), 한면자(寒眠子) 석도륜(石度輪), 김홍경(金弘經), 청사(淸斯) 안광석(安光碩), 도인(島人) 이만우(李晩雨), 우죽(友竹) 양진니(楊鎭尼), 석불(石佛) 정기호(鄭基浩), 소정(小亭) 변관식(卞寬植), 고천(古泉) 배재식(裴在植), 권손(權巽) 등 부산·대구 지역 서화 작가와 고승대덕(高僧大德) 및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후진 양성에 힘썼다.

한편, 일제강점기 흥사단에 가입하여 도산 안창호 선생을 추종하며 광복 운동에 참여하였는데, 부산에 정착한 이후 흥사단 부산지부를 조직하고 전시회를 통해 후원금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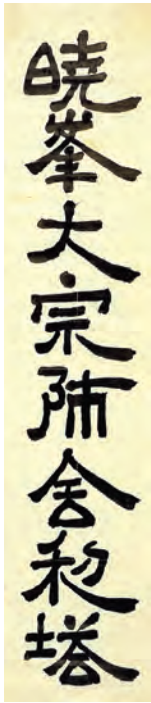
또한 만년에 아들의 초청으로 LA에 이민한 이후에도 조직의 후원자 역할을 도맡았다.

1958~1960년 경상남도미술대전 서예 심사위원, 1962년 (사)한국미술협회 부산지부 지부장 역임, 1966년 부산 시민회관 건립추진위원, 한국서예가협회 위원 등 의학인보다는 문화예술인으로서의 폭넓은 활동이 돋보인다. 환자들에게 받은 진료비를 모아 약을 구하기보다 종지와 붓을 먼저 마련했다는 일화는 그가 누구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생계의 도구는 의술이었으나, 삶의 본질은 서예였던 것이다.

기독교 신자였으나 불교 고승들과의 교류

김광업의 삶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종교적 배경이다. 그는 교회 장로였던 기독교 신자였으나,



효봉대종사사리탑_운여 김광업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불교계 고승들과 평생 깊이 교류했다. 운여가 이렇게 불교와의 인연이 유독 각별했던 계기는 청남 오세봉과 함께 부산 최초의 서예학원인 동명서화원을 운영했으며, 무엇보다 석정스님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석정이 없었으면 운여가 없고, 운여가 없었으면 석정이 없었다고 할 만큼 나이와 종교를 뛰어넘어 예술과 삶 그 전부를 나누다시피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운여와 석정의 만남은 1955년 동명서화원에서였다. 이때부터 운여가 작고할 때까지 20여 년간 운여와 석정은 서로에게 가장 정확한 비평가이자 도반이었다. 묘관음사에는 석정스님의 칠성도와 산신도 등이 모셔져 있어, 석정의 추천으로 운여와 청남이 묘관음사의 현판 제작에 참여했으며, 서로의 끈끈한 인연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운여는 석두화상의 만상좌이자 법정스님의 은사였던 일제강점기 판사 출신의 승려인 효봉스님의 탑비를 쓰기도 했다. 효봉스님의 은사인 석두화상이 바로 석정스님의 친부였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매우 돈독하였다. 효봉스님 탑비는 석정스님이 표충사 주지로 부임할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결국 이 모든 제작의 계기는 석정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정은 운여를 “추사 이후 최고의 선필”이라 평하며, 그의 필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과 자유를 높이 샀다. 기독교와 불교, 서로 다른 신앙의 길을 걸었지만, 예술과 정신의 깊음 교류 앞에서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만남은 종교적 차이를 넘어 인간 보편의 사유와 창조적 영감을 증명하는 장이 되었다.

고전 위에 세운 창조의 필획

김광업의 서체는 추사 김정희 - 우선 이상적 - 위창 오세창으로부터 이어진 서체로, 고전 위에 서 있으면서도 창조로 뻗어 나갔다. 전서에 행서를 섞고, 해서와 예서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운필은 그의 특징이다. 갑골문과 금문, 와전문(瓦顚文) 등 고대 문자의 형상을 탐구한 흔적은 획마다 골기를 더했다. 그의 글씨는 춤추듯 생명력을 띠었고, 화면 구성은 파격적이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았다. “문자나 먹으로 자유자재로 논다”는 평가처럼, 그의 작품에는 글자를 쪼개고 깨뜨리는 ‘파자(破字)’, 글자를 조합하여 독창적으로 만드는 ‘造字’가 얹매임 없이 자유로이 움틀거린다. 특히 와전문(瓦顚文)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이다. 전통을 파고든 깊이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조형성을 창출하는 창의성이 동시에 존재했다. 석도륜은 ‘흰 가운을 입고 목도장 전각에 여념이 없었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즐거워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에게 있어 삶과 예술은 하나였다. 누군가 작품을 요청하면 환자를 진료하다가도 멈추고 글을 써주었고, 생전에 흥사단 기부금 이외에는 작품을 팔아 본 적이 없고 진정으로 원하면 작품을 그냥 주었다는 일화도 회자된다. 그에게 예술은 존재의 본질이었다. 붓을 잡을 때 그는 가장 진실했고, 서예는 그의 생애를 관통한 정신적 좌표였다. 끝내 삶의 무게를 먹빛으로 풀어내며, 자신이 존재했음을 증명한 것이다.



표충사 효봉대종사전진보탑비
(1965년) 운여 김광업
1965년 9월 2일
노산 이은상은 글을 짓고,
운여 김광업은 글을 쓰고,
김영원, 도상복은 새기다

글_이현주 부산시 국가유산위원회

세상의窓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 국부 유출 年 30조 원

“직업엔 귀천 없으니, 우리 일자리 우리가 지켜야”

대한민국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거대한 빨대'에 의해 휘청인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의 사정으로는 '필요악(필요惡)'일 수도 있는 그 '거대한 빨대',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나요? 당연히 아니죠.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는 한국인들이 '3D 업종'을 떠맡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들이면서 자초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3D 업종》이란 'Dirty(더럽고)', 'Difficult(힘들고)', 'Dangerous(위험한)' 세 가지 특성의 직업군을 말합니다. 이런 업종은 고된 노동,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한국인들은 3D 업종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꿰차는 중입니다. 건설업의 현장 작업자나 철근공, 제조업의 조선소나 금속 가공, 화학물질 노출 현장이 그렇고, 농축산업의 비닐하우스 농장이나 축사 현장, 어업의 원양어선 승선과 양식장 관리, 환경·청소 관련 업종인 하수처리, 재활용품 분리 등이 그리하며, 요양·돌봄 서비스 업종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몰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70~80%가 3D 업종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5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인은 낯은 외침(外聲) 속에 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1960년대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세계 10대 경제 대국 행렬에 진입한 2020년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은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 요, 천지개벽(天地開闢)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그 실상은 국민소득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은 세계은행 기준으로 2019년 3만 3,830 달러, 2020년 3만 3,040 달러, 2021년 3만 5,180 달러, 2022년 3만 6,160 달러, 2023년 3만 5,490 달러 등으로 2019년 이후 3만 5천 달러 대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등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1960년엔 고작 120 달러, 1970년 280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극빈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0년 1,870 달러, 1990년 6,450 달러로 급등하기 시작하다 2000년에는 1만 70 달러로 1만 달러 시대에, 2010년엔 2만 2,280 달러로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정도로 숨 가쁘게 성장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 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101만 명으로 2023년 5월 대비 8만 7천 명(9.4%)이 증가했고,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취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법무부의 연도별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을 보면 2020년 203만 6천 명에서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에는 195만 7천 명으로 약간 줄었으나 2022년 224만 6천 명, 2023년 250만 8천 명, 2024년 265만 1천 명으로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체류 현황은 2019년 4.87%에서 2021년 3.79%로 주춤했다가 2023년 4.89%, 2024년 5.2% 등으로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100명 가운데 5명이 외국인이고, 그들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한국 사

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국내 거주 전체 외국인 중 64.7%가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를 산업별 분포로 보면 채굴 및 제조업에 46만 1천 명, 도소매업·숙박·음식 서비스 19만 1천 명, 비즈니스 및 공공서비스 14만 4천 명 등의 순입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약 73%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24%는 중소기업(50~299명)에, 2~3%만이 대기업(300인 이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취업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기업들이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및 고용허가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인 취업자의 국내 취업자 대비 비율은 3.5% 수준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국내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100명 중 3.4명이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보면 약 50~51%가 월 200만~300만 원을, 35~37%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과 초과 근무 비용 등을 보태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기본급 2.09백만 원+상여 4만 1천 원+초과 근무비 42만 5천 원+추가 비용 8만 2천 원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총 약 264만 원 선인데, 국내 중소기업 직원 평균 임금(296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숙식비를 보태면 기업들은 실제로 월 302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보수적 추정으로는 기본 인건비 264만 원이 되지만, 숙식비를 포함한 포괄적 추정 비용으로 환산하면 302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지급하는 외국인에 대한 총인건비는 보수적 추정일 경우 월 2조 6,664억 원(1,001,000명×264만 원)이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32조 원이

됩니다. 그러나 포괄적 추정 비용으로 따지면 월 3조 502억 원, 연간 36.6조 원으로 경중 땡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뭉텅이 돈'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의 '힘든 일자리'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 공급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외국인 계절근로·고용허가·선원취업)'을 20만 7,000명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은 경쟁적으로 기업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외국인 노동자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는 올해 하반기에 2만 2,73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정하는 등 농축산 분야 외국인 인력 수급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3만 명으로 확정했는데, 업종별 쿼터 9.8만 명과 탄력 배정분 3.2만 명 등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로써 올해 농어촌 총배정 인원은 상반기 7만 2,698명을 포함해 9만 5,700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41%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젊은이가 사라진 우리나라 농어촌은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들여야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직업은 고대 때부터 산업화 이전까지는 수렵 등 생존을 위한 자연과 밀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산업화 시대(18~20세기 초)는 기계 중심의 공장 노동이 대세를 이뤘으며, 정보화 시대(20세기 후반~21세기 초)는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의 영향으로 IT 개발자와 디자이너, 금융분석가 등이 인기 직종이었습니

다. 그러나 지식 기반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은 현재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 변화, 인구 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 세계화로 인한 초연결성에 힘입어 AI와 데이터, 플랫폼 경제를 기반으로 한 직종들이 무수히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한 국가, 한 사회에는 반드시 '더럽고', '어려우며', '위험한'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국민소득 1천 달러 시대까지만 해도 일할 곳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달려갔던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나 생활 수준이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엄청난 부가가 해외로, 해외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5만, 10만 명도 아니고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자리를 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국부國富의 규모가 너무 커서 인지 이제 걱정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외국인 노동자가 쟁겨가는 32조~37조 원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국가 예산과 부산시 예산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 예산 규모입니다. 정부는 전년에 비해 3.2% 증가한 677.4조 원을 국가예산안으로 제안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어서 최종적으로 673.3조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가져가는 32조 원이면 국가 1년 예산의 4.75%이고, 37조 원을 가져간다고 치면 5.49%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예산 규모가 13조 4,913억 원이니까, 37조 원이면 신공항 2.74개를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산시의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 6.3% 증가한 16조 6,921억 원이었고, 이후 제1회 추경으로 본예산 대비 2.2% 증가한 3,612억 원 규모를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 포함한 예산 총액은 17조 442억 원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가져가는 37조 원은 부산시의 2025년도 총예산

의 2.17배에 달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2.74개를 만들 수 있고, 부산시 연간 총예산의 2.17배만큼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매년 챙겨간다는 사실,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1천 달러, 1만 달러 시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3만 달러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일터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수준이 워낙 높아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인생 로또'의 기회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한국 땅을 밟으려고 합니다. 월 300만 원이면 자국 인건비의 5~20배 수준이어서 한국에서 5~10년 정도 일한 뒤 귀국하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을 정도라니까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제 '더럽고, 힘들며, 위험한' 일터를 당연히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보너스 600~1,200%에다 수천만 원의 연말 성과급을 주는 대기업에서만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반듯한 일자리'는 턱없이 적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하기 마련입니다. 대기업을 향한 도전에 실패했을 경우 패기를 발휘, 중소기업이나 3D 업종을 차선책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전전합니다. 중소기업들은 하나같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쪽(젊은이)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울상이고, 다른 쪽(중소기업 등)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안달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필자는 최근 지인인 자동차 부품 공장 사장으로 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했다가 혼쭐이 난 사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20~30대 내국인 젊은 직원을 구하려고 1년 가까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부득이 외국인 노동자 서너 명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불법체류 중인 사실을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국에 고발하는 바람에 고용주

인 자신도 처벌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젊은이들은 일터가 있으면 험한 일, 곳은일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심지어는 열사의 나라 중동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일터도 마다하지 않았습다.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집과 전답을 사거나 장가갈 밑천을 마련했고, 동생들 학비까지 대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악조건을 딛고 피땀 흘려 벌어들였던 그 달러가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기둥이 된 데 대해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조금 고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많은 국내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내주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나? 조금 형편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바치고 있어?"라면서 말합니다. 백발의 역군들은 한국의 일터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봉'으로 전략한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가 퇴사를 일삼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돈을 한국 땅에 뿌려도 시원찮을 판에 매년 32조~3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바치고 있으니, 백발의 역군들이 향후 국가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와 노동계, 교육계는 나라 경제를 좀먹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국부 유출'을 차단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50만 명, 10만 명대로 확 떨어지는 그날이 빨리 와야 합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내 일', '우리 일'은 '내'가, '우리'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떳떳해지고堂堂할 수 있으니까요.

글_심수화 언론인·칼럼니스트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2화

「울며 헤진 부산항」과 일제강제동원역사관



1940년 일본 오케이Okeh 레코드사에서 발매가 된 남인수의 「울며 헤진 부산항」 음반과 「울며 헤진 부산항」을 가장 애창하는 곡으로 두었던 황제가수 남인수

뱃길을 통한 이별에는 아픔이 깊다. 바다라는 환경이 주는 단절의 막막함이 슬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일까. 여기에 본의 아니게 강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면 그 아픔은 더욱 깊어지고 오래가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일제강점기에 불린 대표적인 이별가가 있다. 남인수의 「울며 헤진 부산항」이다.

울며 헤진 부산항을 돌아다보니
연락선 난간머리 흘러온 달빛
이별만은 어렵더라 이별만은 슬프더라
더구나 정들은 사람끼리 음— 음—

— 「울며 헤진 부산항」 가사 1절

최근 ‘현역가왕2’에서 진해성이 이 노래를 불러 다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울며 헤진 부산항」. 그러면 이 노래는 언제, 무슨 이유로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는 것일까?

「울며 헤진 부산항」은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0년, 경남 진주 출신의 당대 최고의 미성 가수 남인수가 그의 나이 22살 때 불렀다. 한마디로 그의 이름값을 유감없이 발휘해 준 노래였다. 작곡은 27년간 남인수와 골든 콤비를 이루었던 경남 밀양 출신의 박시춘이 하였고, 노랫말은 충남 아산 출신의 조명암이 썼다. 특히 이 노래는 암담한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불려진 어떤 이별가보다도 노랫말 곳곳에 애절함이 묻어나면서 슬픔의 농도가 진하

게 피어난다. 그것은 1941년부터 1945년에 걸쳐 미국과 일본 간에 벌어진 태평양전쟁 때문이었다. 전쟁은 피아를 불문하고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전쟁터에 끌려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에 어느 누가 남의 전쟁에 목숨을 걸고 스스로 나가겠는가.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벌이면서 전쟁 수행을 위한 정책들을 속속 추진하였다. 점차 전선이 확대되자 일제는 더욱 병력 보충에 혈안이 되면서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 1839년 7월 ‘국민징용령’을 발표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뒷받침하였다. 이어서 태평양전쟁이 벌어지자, 1941년 ‘국민근로보국협력령’, 1942년 징병 적령자의 거주 파악을 목적으로 ‘조선기류령’, 1943년 3월 ‘조선인 징병제’, 같은 해 7월 ‘해군특별지원병령’에 이어 10월에는 학도지원병 동원 근거가 되는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을 공포했다. 그분이 아니었다.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까지 공포하여 12세~40세 여성 노무 동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통계를 근거로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추계한 강제동원 인원은 중복 인원 포함 7,827,355명이다. 이 숫자는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피해자 1인이 동원 지역과 유형에 따라 이중삼중으로 잡혀있어 통계의 정확성에는 문제가 있

어 왔다. 위원회가 전산화한 자료(DB)에는 180만 명의 이름이 담겨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 정부가 추산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약 200만 명으로 보고 있다.¹⁾ 이 가운데 일본으로 강제로 동원된 사람은 적게는 80만 명에서, 많게는 120만 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제는 탄광, 비행장, 군수공장, 철도공사장 등 전시 노무에 필요한 조선인 징발에 역점을 두고, 1939년에서 1944년까지 5년에 걸쳐 약 79만 8천 명의 노무자를 동원했다. 광산에 43만 6천 명, 토건사업 14만 7천 명, 항만 하역 2만 4천 명, 군수공장 등에 19만 1천 명이였다.²⁾

전쟁이란 인력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일제는 전쟁에서 오는 부족한 물자를 보충하기 위해 ‘공출(供出)’이란 정책을 꺼내 들었다. 군량미를 위한 ‘미곡 공출’, 군함과 무기를 만들기 위한 ‘금속류 공출’, 군복 제조용 ‘목화 공출’, 윤활유와 산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피마자 공출’, 군화와 식용을 위한 ‘소 공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제 공출은 물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비롯한 각종 동원 법령은 인적 공출을 위한 강제적 법적 조치의 뒷받침이었다. 부산항은 이러한 인적·물적 공출의 최종 집합 현장이었고, 관부연락선은 이들을 싣고 일본으로 가는 운송수단이었다. 1937년 중일전쟁

부산항 제1부두에 접안하여 화물을 싣고 있는 관부연락선(신부산대관)



일본군 무기에 사용되어지기 위해 공출된 각종 금속 제품



이후 대한해협을 오간 연락선은 모두 10척이다. 여객선으로는 3천 톤급의 신라·경북·덕수·창경환 4척, 화물과 여객을 싣는 화객선은 7천 톤급의 금강·홍안·천산·곤륜환 등 4척, 전용 화물선은 3천5백 톤급의 일기·대마환 2척이었다. 전쟁터나 탄광과 같은 암담한 곳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조선의 청년들에겐 이들 선박은 두려움의 존재였다. 얼마나 원망스러운 존재였으면 이들 선박을 ‘지옥연락선’ 또는 ‘전시노예선’이라 불렀을까?

일제강점기 조선식산은행 고문을 역임했던 가마타 사와 이치로 鎌田 沢一郎는 그의 저서 『조선신화』에서 조선인들이 강제로 연행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다.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노무 징용자 할당이 상당히 혹독해졌다. 납득해서 응모하기를 기다려서는 그 예정 수를 도저히 채울 수 없었다. 군이나 면(面)의 노무 담당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남자가 있는 집으로 가 깊이 잠든 때를 노려 갑자기 습격하거나 논밭에서 한참 일하는 곳에 트럭을 대고 아무 일도 아닌 듯이 태우고 데려가서는 집단을 편성하여 훗카이도나 규슈에 있는 탄광에 보냈다.” 마치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연상할 정도로 비참한 현실이 펼쳐졌던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강제 연행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 이웃이 피해를 보았을까? 일제 말기인 1940년 조선의 인구는 약 2,600만 명이였다.³⁾ 강제 동원된 규모가 약 200만 명이라면 13명 가운데 1명쯤이 강제 동원이 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무렵 한 가족의 구성원이 약 5명이라 보면, 두 집 건너 한 집에서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강제 동원으로 끌려갔다는 셈이 된다. 이 정도였으니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요, 형제요, 이웃이었기에 어찌 이들의 만행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치를 떨지 않았으랴! 그러다 보니 「울며 헤진 부산항」의 노래를 부르면서 응어리진 가슴을 쓰다듬으며 애절한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날로 「울며 헤진 부산항」이 인기가 급상승하자, 부산경찰서는 느닷없이 화살을 남인수에게

로 향했다. 영문도 모르고 경찰에 연행된 남인수는 일본계 담당 형사로부터 “네가 솔직히 고백하면 내보내 줄 테니 자수를 하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갑자기 이 소릴 들은 남인수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감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형사가 요구하는 본심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울며 헤진 부산항」이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 만든 노래로서 조선 민중을 선동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느닷없이 시말서를 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인수는 끝내 시말서를 쓰지 않았다. 당시의 정서를 그대로 노래했을 뿐, 선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자, 그네들도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했던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풀어 주었다. 조선인의 아픔의 노래가 그네들에게는 저항의 노래로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통한의 정서를 어디 일본 순사가 강제로 막는다고 해서 멈춰질 일이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울며 헤진 부산항」은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대변하는 전통가요로서의 큰 가치를 지닌다.



1963년도 후랑크백이 부른 동명의 영화
〈울며 헤진 부산항〉 음반 표지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자리하고 있다. 일제가 강제동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했으며,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아픔의 역사관이다. 이 역사관이 2015년 12월에 부산에 들어서게 된 배경은 크게 2가지였다.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의 약 22%가 경상도 출신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동원자 대부분이 부산항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점이다.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산항은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공출의 현장이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울려 퍼진 「울며 헤진 부산항」은 식민지 조선인의 가슴을 울린 민족의 수난 국민가요였고, 오늘날에 와서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에워싼 배경음악이 아닌가 한다.

흥미로운 점은 남인수가 불렀던 「울며 헤진 부산항」 말고도 동명이곡(同名異曲)의 노래가 전해진다는 것이다. 항구는 이별의 정서가 강한 곳이다. 돌이켜보면 해방 이후 부산항에는 눈물로 떠나보내야 할 굶직한 대상이 몇몇 있었다. 1960년대 부산항 제2부두에선 브라질로 이민선이 떠나고, 제4부두에선 파월장병들도 떠났다. 그리고 마도로스들도 외화벌이를 위해 정든 가족을 뒤로한 채 부산항을 떠났다. 이러한 이별의 모습을 두고 당시 음악인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 가운데 반야월 작사·이인권 작곡으로 후랑크백이 부른 「울며 헤진 부산항」은 당시 미도파레코드사에서 출시한 동명의 영화주제곡이었다.

영화 〈울며 헤진 부산항〉은 마치 1960년대 우리나라 마도로스의 전성기를 예고라도 하듯, 1963년 강대진 감독이 최무룡·김지미 주연으로 만든 멜로·로맨스 영화였다. 이 영화에는 세곡의 주제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후랑크백의 「울며 헤진 부산항」, 두 번째는 주연이었던 배우 최무룡이 부른 「사나이 우는 마음」, 세 번째는 이미자의 「다시 또 한번」이었다.

이처럼 똑같은 제목의 「울며 헤진 부산항」이란 노래지만, 이들 노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완전히 다르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이름이 오래도록 후세에 전하듯, 어둡고 아픈 시기에 온 민족이 함께 부르며 위로받던 그 노래가 오래도록 사랑받는 것은 당연하다고나 할까.

글·이용득 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장

- 1 정해경,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인 강제동원」, 동북아역사재단, 2019, pp.111~112
- 2 일본 후생청, 『조선경제통계요람』, 1949
- 3 박경숙, 「식민지 시기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제32권 제2호, 2009

부산 연극인 전성환 배우 영결식 엄수

부산 연극계를 상징하며 대한민국 연극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원로 배우 전성환이 지난 8월 31일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영결식은 9월 3일 오전 10시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사)한국연극협회와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주최로 엄수됐다. 유족과 부산 연극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삶과 예술혼을 기리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권철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영결식에는 손정우 장례위원장이 추모사를, 허은 원로 연극인과 이정남 부산연극협회 회장, 배우 김지현이 차례로 조사를 낭독했다. 장례는 대한민국연극인장으로 치러졌다. 전성환은 1940년 북간도에서 태어나 1951년 부산에 정착했으며, 1963년 동생 故 전승환과 함께 극단 전위무대를 창단해 연극 활동을 본격화했다. 그는 부산 연극계를 기반으로 연기, 연출, 분장, 제작 등 무대의 전 영역에서 활약하며 <리어왕>, <세일즈맨의 죽음> 등 굵직한 작품에 출연했다. 2000년대에는 활동 영역을 영화와 방송 드라마로 넓혔다. 2003년 영화 <오구>와 <청풍명월>에 출연했으며, 2005년 영화 <활>의 주연을 맡아 칸 영화제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어 드라마 <태왕사신기>(2007), <제빵왕 김탁구>(2010), <부리깊은 나무>(2011) 등에서도 개성 있는 연기로 주목받았다. 고인은 생전에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업적을 인정받았다. ▲1983년 놀원문화재단 향토문화상 ▲1986년 부산연극제 남자연기상 ▲1989년 한국연극예술상과 부산시 문화상(무대예술 부문) ▲2000년 제1회 가족문화상 ▲2001년 제11회 이해랑연극상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 예총 예술문화상 대상과 한국연극협회 자랑스러운 연극인상 등도 받았다. 또한 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장과 부산시립극단 수석 연출·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제22회 아세아영화제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한편 MBC 부산문화방송 프로듀서로도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예술 문화 발전에 힘썼다. 부산 연극계의 큰 별이자 예술혼으로 세대를 이어온 고인의 삶은 한국 연극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부산예총, 2025 부산예술상 및 예술문화공로상 수상자 발표

제24회 부산예술대상, 안용대(건축) 서지영(무용) 최삼화(음악)

젊은예술가상, 김종택(미술) 이현우(음악)

특별상, 이종윤(무용) 정경화(문인) 정안용(미술) 백수정(연예예술) 차호철(음악)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2025년 부산예술상 및 예술문화공로상 총 1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제24회 부산예술대상은 건축 안용대, 무용 서지영, 음악 최삼화가 각각 수상했다. 젊은예술가상은 미술 김종택, 음악 이현우가 받는다. 올해 부산예술상 기금으로 마련된 특별상은 무용 이종윤, 문인 정경화, 미술 정안용, 연예예술 백수정, 음악 차호철 등 5명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안용대는 부산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서울 공간건축과 이로재 승효상건축 등에서 실무를 거친 뒤 1995년 (주)가가건축사사무소를 설립했다. 부산다운 건축상을 비롯해 다수의 건축상을 받으며 부산 건축계의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서지영은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인 '살풀이' 전수자이자 제27호 '승무'의 이수자로, 부산시립무용단 수석 단원과 부산무용협회 회장을 지냈다. 1997년부터 서지영무용단을 이끌며 부산 무용계 발전에 힘쓰고 있다. 최삼화는 동의대학교 명예교수로, 부산음악교육연구회·부산작곡가협회·부산음악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창작합창21 고문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예술문화공로상은 ▲부산시장상에 정성우(주)지맥스 대표), 정광현(주)포엠 대표) ▲부산시의회 의장상에 정달식(부산일보 논설위원), 김청룡(주)협성건설 대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상에 고승호(부산문인협회), 조윤희(부산국악협회)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상 박종관(부산음악협회), 조영숙(부산미술협회)에게 돌아갔다.

부산예술대상 수상자에게는 각 500만 원과 상장이, 젊은예술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상장이,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100만 원과 상장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8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제24회 부산예술대상
안용대 (건축)



제24회 부산예술대상
서지영 (무용)



제24회 부산예술대상
최삼화 (음악)



젊은예술가상
김종택 (미술)



젊은예술가상
이현우 (음악)



특별상
이종윤 (무용)



특별상
정경화 (문인)



특별상
정안용 (미술)



특별상
백수정 (연예예술)



특별상
차호철 (음악)

제32회 부산문학상 시상식 개최

2025. 9. 5.(금) 오후 3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문인협회(회장 박혜숙)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제32회 부산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9월 5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을 비롯해 남구문화원 김철 원장과 이석래·최영구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격려사에서는 문인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강조됐으며, 김석규 심사위원장은 문학의 독자성과 예술성에 대한 찬사를 전했다. 올해 대상은 ▲시 부문 주순보·이용철·이정숙(항천) ▲아동문학 부문 하빈 ▲수필 부문 김나현에게 돌아갔

다. 우수상은 ▲시 부문 정서연·최은복·홍덕기 ▲시조 부문 신진경 ▲아동문학 부문 이돌자에게 수여됐다. 부산문학상은 작품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문인으로서의 품격과 지역 문단에 대한 기여도를 함께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500만 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전달됐다.

2025 점심버스킹 in Madang 비페 <비페 봤데이(Day)>

2025. 9월 부산예술회관 1층



4월의 따스한 봄날 시작한 2025 걷다가 만나는 버스킹 <점심버스킹 in Madang>이 9월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이번 버스킹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무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국악, 가요, 클래식,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지며 올해 총 9팀이 무대에 올랐다.

벚꽃이 흩날리던 계절에는 꽃잎처럼 흘러내리던 선율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고,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작은 그늘 같은 무대가 되어 주었다. 그렇게 다채로운 순간들이 쌓이며, 부산예술회관 앞마당은 예술의 숨결로 가득 채워졌다.



HELLO 오르간

10. 10.(금) 오전 11시
부산콘서트홀

국내 최고의 오르가니스트 김지연과 건축학자 김종진이 함께하여, 건축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오르간의 세계로 안내한다. 연주 프로그램에는 바흐의 「환상곡과 푸가 g단조」,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르간의 장엄한 울림과 함께 다채로운 음악적 색채를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연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의 공간 속에서 직접 설계되고 건축되는 악기인 파이프 오르간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우리 삶의 배경인 건축과 음악이 어떻게 하나의 예술로 서로를 완성해 가는지를 확인하며, 그 울림 속에서 오래도록 여운을 느껴보길 바란다.

문의 051)640-8826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展 Viva Frida Kahlo

8. 28.(목) ~ 10. 19.(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원작을 정교하게 재현한 레플리카 작품들을 통해 멕시코의 국보급 화가 프리다 칼로의 치열했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어린 시절 병과 사고로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았던 그는 자신의 내면과 상처를 거침없이 화폭에 담아냈으며, 멕시코 정체성과 여성 예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표작 「상처입은 사슴」, 「두 명의 프리다」 등 잘 알려진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현실의 고통을 초월해 독창적 회화로 승화한 그의 예술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뜨거운 울림을 전한다. 이번 전시는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사랑하고 예술로 승화했던 프리다 칼로의 열정을 가까이에서 느껴볼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051)607-6000



슬픔이 찬란한 이유

10. 16.(목) ~ 19.(일)
목 오후 7시 30분 /
금 오후 2시, 7시 30분 /
토 오후 2시, 6시 / 일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2021년 전국창작희곡 공모전 대상 수상작이자, 2024년 ‘올해의 포커스 온’ 작품으로 선정되어 김숙경 작·연출, [문화판 모이라]에서 무대에 오른 작품이다. 해룡마을을 배경으로 상가 개발과 조난 사고의 기억이 얹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의 갈등과 아픔을 드러낸다. 뜻하지 않은 갈등, 병마와의 싸움, 상실감 속에서 안으로 고여 있거나 주체할 수 없이 북받쳐 오르는 ‘슬픔’에 주목한다. 양진철(총식), 배진만(만항)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진한 울림을 전한다. 삶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무대를 통해 따뜻한 공감과 깊은 사유를 느껴보길 바란다.

문의 010-9701-0712



권영술·조현서 2인전 연결의 망

9. 23.(화) ~ 10. 23.(목)
레오앤갤러리

레오앤갤러리에서 권영술과 조현서의 2인전 '연결의 망'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기억과 정체성, 파편화와 복원, 관계와 거리'를 키워드로, 서로 다른 조형 언어를 구사하는 두 작가의 작업이 하나의 유기적 그물망처럼 얹히며 관객을 사유의 장으로 이끈다. 권영술은 파편적 이미지를 반복·축적하며 시간과 존재의 흔적을 탐구하고, 조현서는 실과 천, 재봉틀을 이용한 봉합의 행위로 관계와 정체성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두 작가의 작업은 삶과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특별한 시선을 제시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잇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문의 010-5303-9814



제16회 부산평화영화제

10. 24.(금) ~ 26.(일)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

올해로 16회를 맞은 부산평화영화제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에서 열린다. 평화와 인권, 환경, 공동체의 가치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며 영화를 통한 공감과 연대를 이어간다. 개막작은 팔레스타인 마사페르 야타 주민들의 생존과 저항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언허드: 마사페르 야타를 지켜라>로, 세계 인권 문제의 현주소를 생생히 전한다. 한 편의 영화가 던지는 울림은 평화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두드리며, 잊고 있던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스크린을 통해 평화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문의 051)469-8451



부산현대미술관 시네미디어 영화 이후

9. 13.(토) ~ 2026. 2. 18.(수)
부산현대미술관

2023년 첫 전시에 이어 마련된 이번 전시는 디지털 혁명 이후 변화한 영상 환경 속에서 영화 매체의 고유성과 현대미술 안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탐구한다. 국내외 영화 감독 및 작가 67명(팀)이 참여해 총 111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필름 설치와 디지털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전시와 함께 영화의전당과 연계한 특별 상영 프로그램에서는 고다르, 아벨 가스 등 거장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강연·워크숍·퍼포먼스 등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영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번 전시는 관객에게 '영화 이후'의 새로운 상상력을 열어 줄 것이다.

문의 051)220-7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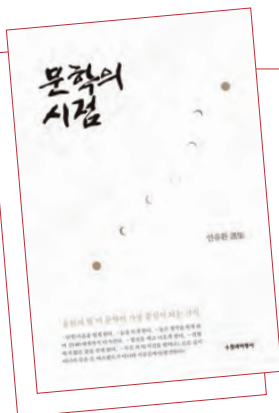
11월의 플라타너스 정옥금 / 도서출판 두손컴

‘글을 몰라 책을 쓰지 못했다고 한탄하셨던 우리 어머니. 글 조금 아는 막내딸이 책 13권 저자가 되었습니다.’ 정옥금 시인은 이 짧은 헌사로 시집 『11월의 플라타너스』의 문을 연다. 남편의 병, 주변인들과 잇따른 이별, 깊은 상실과 허망 속에서도 ‘결국, 한 줄의 시만을 쓸 수 있었다’는 고백은 시인으로서의 진심을 말해준다. 표제작 『11월의 플라타너스』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쓴 산문시다. ‘허영게 버짐 핀 나무둥치에 눈 감고 귀 대고/속속들이 어려있는 적요한 내력을 더듬어 본다’(『11월의 플라타너스』부분)는 구절처럼 생생한 장면 묘사를 통해 독자에게도 아릿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시인은 시를 통해 한 사람의 생이 지나온 계절과 풍경을 조용히 비춘다.



청사포驛 이용철 / 이로제

이 시집 속 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시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에 짧은 시를 덧붙인 ‘디카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시 형태의 일반시다. 디카시 중 ‘자식 중에도/아리고 약한 놈에게/안쓰러운 손길 가듯이/만져보고 쓰다듬는/엄마 마음’(『막내 생각』) 같은 시구는 단 몇 줄로도 풍성한 서사를 전한다. 단호박을 고르는 여성 사진에서 착안한 이 시는 재치와 창의성이 돋보인다. 「도꾸」, 「열다섯 소년」 같은 일반시에는 시인이 견뎌온 어린 시절과 슬픔의 감정을 극복해낸 과정이 오롯이 담겨 있다. 마냥 유머러스하지 않고, 진지함과 따뜻함이 조화된 시집이다. 「만년필과 노트, 현책방과 카메라를 좋아하는 소년」이라는 자기 고백처럼, 그의 시엔 아직 세상을 바라보는 소년의 눈이 살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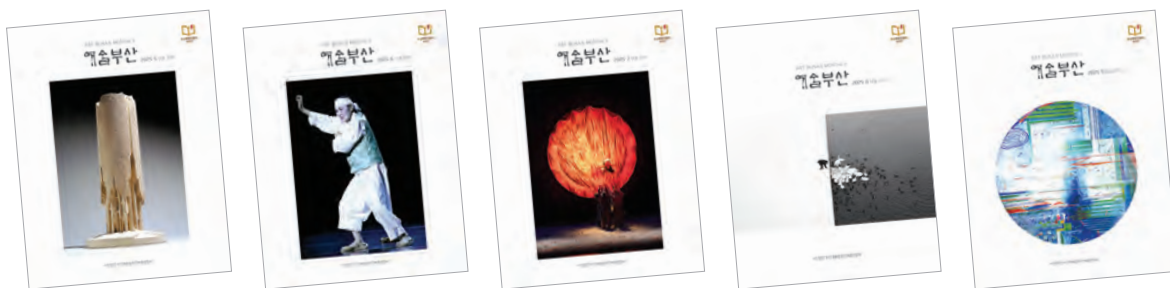


문학의 시점 안유환 / 수필과비평사

『문학의 시점』은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산문집이다. 작가는 문학을 ‘언어예술을 통한 인생의 표현’이라 정의하면서도 문학이란 무엇이며 예술이란 또 무엇인지에 대한 사유를 끝없이 이어간다. 시로 문학계에서 신인상을 받은 그는 소설로 등단하고 수필집도 펴내며 문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폭넓은 창작 활동을 이어왔다. 그런 작가의 궤적이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수필과 시, 소설과 칼럼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문학과 삶, 그리고 예술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목사로 활동해 온 저자의 종교적 철학과 신념이 문장 곳곳에 스며 있어 인간과 세계를 향한 시선에 깊이를 더한다.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 성 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 편집실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E-mail** artbusan1997@naver.com

제29회 새물결 춤 작가전

2025. 11. 29_{SAT} - 30_{SUN} 7PM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주최 / 주관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지회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본 공연은 2025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5 NEW WAVE DANCE ARTIST PERFORMANCE

제163회 부산 예술제

‘NEXT WAVE: 부산, 미래를 그리다’ 개막식 · 10월 29일(수) 17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개막식 및 개막공연 10.29(수) 17시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건축도시사진전 10.15.(수) ~ 10.19.(일) /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전통음악한마당 10.19.(일) 17시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무용예술제 10.12.(일) 18시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역문학작품 교류전 10.20.(월) ~ 10.25.(토) /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작전 10.20.(월) ~ 10.25.(토) / 부산광역시청 제1,2,3 전시실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회원전 11.04.(화) ~ 11.07.(금) / 부산광역시청 제1,2,3 전시실

직강연극제 10.15.(수) / 10.21.(화) / 10.23.(목) / 10.25.(토) / 소극장 6번출구

부산 실버가요제 10.26.(일) 15시 /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가곡과 아리아의 밤 11.01.(토) 17시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꽃예술제 11.07.(금) ~ 11.09.(일) /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세계 읊다 풍속 10.26.(일) 12시 /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

주최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건축가회 부산국악협회 부산무용협회 부산문인협회 부산미술협회 부산사진작가협회 부산연극협회
부산연예예술인협회 부산음악협회 부산꽃예술작가협회 부산차문화진흥원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특별후원 | BNK 부산은행

꽃 예술전

꽃 가을을 감다

일시 : 25.11.07(금)-11.09(일)

장소 :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주 최 |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FACOB THE FEDERATION OF ARTISTS & CULTURAL ORGANIZATION OF BUSAN 주 관 | 부산꽃예술작가협회

후 원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 MBC  부산광역시  대외방송 KNN

특별후원 |  BNK 부산은행  大韓佛敎 會 議 堂 安 國 學 院

제21회
**부산국제차
어울림문화제**

2025. 11.07(금) ~ 11.09(일)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개막식 2025. 11.07.(금) 오후 3시

개막전시 동양 차문화 다구 특별전
(송대 흑유 다완의 세계)

주최 (사)부산차문화진흥원

주관 제21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조직위원회

후원



부산 MBC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부산블로깅방송



부산 KBS

한국국제창작다례협회

(사)부산차문화진흥원

Busan Tea Culture Promotion Study Committee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문화예술로 쌓아온 58년 부산은 행복합니다

문화로 웃음을 키웠습니다
예술로 일상을 빛냈습니다

부산의 행복이 문화예술로
더 커질 때까지
지난 58년처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BNK가 함께 가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Busan Fireworks Festival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usan Comedy Festival



Busan Rock Festival



Busan Biennale

정가 5,000원



9 771976 974008
ISSN 1976-9741

[이 광고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